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양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3 충헌교회

THE WEEKLY CHŎNGHYUN

발행인: 김성찬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다움주일설교 |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



김성찬 목사

“천사가 일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시실 것이며 그 나가가 무궁하리라” (눅 1:30-33)

누가복음의 첫 장에 보면, 주의 사자(使君인) 가브리엘 천사가 두 가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러 나오나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 준 첫 번째 메시지는 제사장 사가라에게 임했습니다(1:13). 사가라에게 임한 기쁜 소식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두 번째 메시지는 처녀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26, 27). 마리아에게 임한 기쁜 소식은 인자(人子)의 탄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임한 이 두 가지 소식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곧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사가라에게 전해진 소식

가브리엘은 앞으로 태어날, 사가라의 아들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아기의 출생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13, 14절). 또한 가브리엘은 그 아기가 장차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15절). 가브리엘은 다음과 같은 사신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저스리는 자를 의인의 습관에 회개하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17절). 장차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회개를 촉구하고 선포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사가라에게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앞으로 태어날 그의 아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사명자로 태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가라의 반응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가라는 이미 노인이었고 그의 아내 역시 노인이었습니다. 사가라는 아기를 낳기 어려운 자신들의 형편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냄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내가 병어리니 내가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라와 내가 이르네 내 말이 이루어리라 하리라”(19, 20절). 사가라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병어리가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

가브리엘이 두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마리아’라고 불리는 가난하고 젊은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 준 기쁜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면서도 그 소식을 믿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마리아에게는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전해들은 그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을 말해 주면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일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자신이 들은 바인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 놀라운 소식을 세상에 드러내놓고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축약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

사가라와 마리아는 기독교의 신비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고전 1:21). 어떤 사람은 그처럼 위대하고 기쁜 소식이 임할 당면은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해야 하지 않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대변하여 가장 좋은 출산장과 군것질을 마린 채 놓고 화려한 탄생 축하 잔치도 열 것 아니냐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브리엘 천사는 세상을 향하여 목소리를 낼 수 없

는 두 명의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마리아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30, 31절). 가브리엘 천사는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31:14). 사실 이 기쁜 소식은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위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온 세상은 그 소식을 기다리고 기쁘게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을 통해 나실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그들의 왕을 맞이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31절).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장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마 1:21)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12:47). 가브리엘은 또 말했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눅 1:32). 아기 예수의 신성에 관한 이와 같은 증거는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하거나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영의 천사를 보내어 이 특별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소식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소식임이 분명합니다.

영원히 왕 노릇 하시려 오심

두 번째 주제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시실 것이며 그 나가가 무궁하리라”(32, 33절). 아벨린 이전에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다윗의 왕위는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시니 오 번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시 132:11).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 노릇 하시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시어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신 바 있는데(창 28장), 그런 야곱의 꿈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 노릇 하시실 것입니다. 더욱이 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은 영원할 것이며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비천한 젊은 여인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방법입니다.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단 7:13, 14 참조).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를 택하시 자신의 약속을 실현시키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예언되었던 여인의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창 3:15 참조).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방식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한 그 무엇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기쁨 받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라 새 되었다”(고후 5:17).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신爱是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크게 다릅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크게 다릅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측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의 초대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일찍부터 예언했고, 사가라와 마리아에게 전해진 가브리엘의 메시지는 그 예언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 메시지를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하여 어려운 삶은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 방식이 완전하고 이성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야말로 구원의 완전한 방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

| Sermon for next week |

ANGEL'S ANNOUNCEMENT

“(30)And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31)And behold,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ear a son, and you shall name Him Jesus. (32)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and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33)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and His kingdom will have no end.”(LUKE 1:30-33)

The first chapter of Luke shows Gabriel, an angel of the Lord, delivering two special announcements concerning God's plans. The first message came to Zacharias, a priest, while he was performing his duties in the Temple (v. 11). His good news concerned the birth of John the Baptist. The second message came to Mary, an engaged virgin, who lived in Nazareth (vv. 26&27). Her good news concerned the birth of the Son of Man. Both heavenly communications related to the advent of Messiah, God's plan of salvation. The angel's proclamation of the coming Christ announced to Zacharias and Mary give us the meaning of Christmas.

Gabriel first arrived in the Temple to talk to Zacharias. Apparently, they talked for some time because the people waiting outside became worried(v. 21). They probably wondered if he had died. Gabriel told Zacharias the good news about his forthcoming son. He informed him that his name would be John, and that many would rejoice at his birth(v. 13&14). He also said that he would be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that he would drink no wine or liquor, and he woul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hile yet in his mother's womb(v. 15). Moreover, he let Zacharias know, "It is he who will go as a forerunner before Him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to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back to the children, and the disobedient to the attitude of the righteous, so as 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v. 17). Elijah was the stern prophet who rebuked the idolatrous King Ahab(1 Ki. 21:17-24). He preached repentance, as John the Baptist would also do. Although Gabriel gave Zacharias a lot of good news, the key message was that his future son would be the privileged one to prepare the way for Messiah.

When Zacharias received God's message from Gabriel he was an old man, and his wife was advanced in years. Their situation caused him to doubt God's message. Gabriel told him, "I am Gabriel, who stands in the presence of God, and I have been sent to speak to you and to bring you this good news. And behold, you shall be silent and unable to speak until the day when these things take place, because you did not believe my words, which will be fulfilled in their proper time"(vv. 19&20). Sadly, Zacharias' weak faith caused him a physical disability that kept him from spreading God's good news.

Gabriel's second visit was to a lowly, young Jewish woman, named Mary, who lived in a little town. She was engaged to a man named Joseph, "of the descendants of David"(v. 27). She received her good news with wonderful pleasure, and a believing heart. Her dilemma was that she could not share it with the world because the world would most likely stone her. In those days, sexual relations prior to marriage were not only strictly forbidden, but also punishable by death. As such, she could not publicly announce the most gracious and wonderful news this earth had ever received.

Zacharias and Mary received the secret of Christianity. "For since in the wisdom of God the world through its wisdom did not come to know God, God was well-pleased through the foolishness of the message preached to save those who believe"(1 Cor. 1:21). God's ways are mysterious. One would think that such great, good news should be spread over the whole

world to prepare the very best birthing room, palace, and birthday party for the Son of God. Instead, Gabriel came and explained God's secrets to two individual who were unable to shout them to the world. He showed up twice, once to an old man, and then to a young virgin. He gave God's good news to a priest and a peasant. The old man, God's man, doubted the message. The poor virgin praised the Lord. Scripture records her song, and even today, we sing it(vv. 46-56). Let us now listen to the words told to Mary by Gabriel regarding the meaning of Christmas, the secret of Christianity.

God's message to Mary included two important themes. The first was that Christ was coming to redeem the world. Gabriel told her, "Do no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v. 30). The angel called her by name. The message from heaven was personal. God dedicated it to her, so she had nothing to fear. He explained that not only her physical body, but also her heart and soul had received the grace of God. As she listened to Gabriel's words, she heard, "And behold,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ear a son"(v. 31). The angel was talking to her about the Old Testament prophecy, "Behold, a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bear a son, and she will call His name I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Is. 7:14). Even though she had never been with a man, the angel told her she would bear the Son of God. This good news was not for her only; the whole world should have been ready to receive it. The Old Testament prophecies clearly foretold Christ's coming. God's people already knew He would be born of a virgin in the town of Bethlehem. They should have been eagerly anticipating His arrival, preparing to receive their King.

Gabriel told Mary that the son she would conceive, by the workings of the Holy Spirit, would be named "Jesus", which means the Lord is salvation(v. 31). God chose His name. This Jesus would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Mt. 1:21). He was coming not to judge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Jn. 12:47). Gabriel also told Mary,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v. 32). This proof of the child's deity cannot compare or parallel with any other person. God sending his heavenly angel to deliver this special news gives it maximizing authority. Christ would come, and He would come to redeem.

Christ would also come to reign, "and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and His kingdom will have no end"(vv. 32&33). Amen! The virgin Mary received so much blessing news. Jesus would have divine authority. The throne of David would be His, as promised to David, "The Lord has sworn to David a truth from which He will not turn back; of the fruit of your body I will set upon your throne"(Ps. 132:11). He would rule over Jacob's house, "the descendants of Abraham", forever! In Jacob's dream, the Lord God confirmed the Abrahamic covenant to him (see Gn. 28). Moreover, this Jesus' kingdom would be eternal. It would have no end. It would never perish.

How could all these wonders come to happen through a young woman nobody knew? That is God's way. That is His promise made full from the Old Testament. Messiah came to this earth as the Son of Man (see Dan. 7:13&14). God chose the virgin Mary to make His promise a reality. The seed of the woman was Christ(see Gn. 3:15). God had prepared the way. His love is forever. His sincerity is real. His promises are true. His blessings cannot be measured by human calculations. God does things His way, and His ways are mysterious to us. Whoever believes in them will receive His blessing,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2 Cor. 5:17). Many people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but they imagine them their way, not His. God's works are different from our ways of thinking. The human measurement of Christmas does not compare to God's measurement. If you measure the meaning of Christmas by human standards, it is stupid. However, if you believe in the meaning of Christmas, you receive God's greatest blessing.

My dear friend, Christmas is about the Son of God coming to this earth, taking the form of human flesh, through the virgin Mary. The Old Testament foretold its occurrence, and Gabriel's announcement to Zacharias and Mary confirmed it. If you open your heart, you can believe it, and the grace of God will change your life eternally. God's eternal Son made flesh is His plan for the salvation of His people. His way of saving us is the only way. No matter how imperfect it may seem, it is the perfect way. It is the way of God. Please believe it, and let this Christmas reveal your faith. 

딱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자

욥기 1장 초반부에 기록된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였다(2-3절). 그에게는 칠천 마리의 양과 삼천 마리의 양대, 오백 겨리의 소와 오백 마리의 암나귀, 그리고 많은 하인들이 있었다. 만일 이런 욥이 오늘날 살아 있다면, 아마도 매일같이 간증집의 강사로 불러 다닌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이다. 믿음으로 백만장자가 된 욥이라는 간증집도 만들어져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볼타라에 팔릴 것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욥기 1장 초반부에 들어서면, 욥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을 모두 잃어버린 알지지가 된다. 설상가상으로 욥기 2장에도 넘어가면 몸에 뭍을 병까지 얻어 아내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조각으로 몸을 긁어대는 처량한 신세가 된다. 만일 이런 욥이 오늘날 살아 있다면, 어떨까? 이런 욥도 여기 저기 간증집의 강사로 불러 다니다가 몇몇 욥의 간증집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출판업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흔히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면 가난하게 살다가도 부자가 되어야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며, 사업에 실패하다가도 사업에 크게 성공해야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며, 병에 걸려 고생하다가도 병이 깨끗하게 나아야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사로잡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가난해지거나, 건강을 잃고 병약한 사람이 되거나,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딱하게 여기는 일이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만 같아서 크게 부끄러워하고 염려한다. 물론 사람이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약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렘전 4:15b) 고난을 받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으로 인하여 크게 부끄러워하고 한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중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워 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변 사람들도 이런 사람을 딱한 눈으로 쳐다보아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중 욥을 유하여 보았노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너를 격동하여 깨달았으니 그를 차게 하였으며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니라"(욥 2:3). 이것은 경건하게 살면 욥이 극한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자랑의 말씀이다. 그렇다. 비록 욥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매우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하늘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랑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욥이 부자로 있었을 때보다 고난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의 순결한 신앙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크게 영광을 얻으셨고 더 크게 자랑하셨던 것이다. 그렇다. 신자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굴복시킬 때,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딱한 사람으로 비쳐질지라도, 실상은 하늘에서 하나님은 큰 자랑과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다가 뜻하지 않게 건강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난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속을 태우지 말자. 오히려 하늘에서 하나님의 더 큰 자랑과 더 큰 영광이 되도록 순결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내하도록 하자. '너를 부패하나누가 부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싹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렘 31:7, 18)라는 신앙으로 굳게 서 있도록 하자. 또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데도 여전히 가난하거나,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거나, 여전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져 있을 때, 그 사람을 접하는 눈이나 딱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도록 하자.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들이 건강하고 부요하며 성공하는 우리들보다 하나님의 더 큰 자랑거리요 더 큰 영광임을 알고 그들을 존중하 여 기뻐, 그들이 자속적으로 순결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기도로 후원해 주자. 욥기 1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욥만 좋아하지 말고, 욥기 1장 후반부와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욥을 더 좋아하는 우리가 되자.

이태백 목사(전직교도)

주간 성경공부를 마치고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강은 미 (집사, 5교구)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내 의지대로 무척 노력을 했던 내게,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었고 말씀으로 인해 갈급해 있던 제게 하나님께서 성경말씀을 통해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야 한다는 생각이 가정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가고 봉사도 하고 자녀도 말씀대로 하고 기도하고 하는 등 최후순 순위가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천국도 가다 되겠고 상급도 받아야 되겠기에 그랬었습니다. 그런 노력의 불행해 보였는지, 아니면 주위 분들의 기도 때문이었는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기로 작정해 주셨습니다.

신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랑의 하나님, 말로 하다 못해 십자가 형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다 배반한 우리들에게 직접 성령으로 인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강박했던 내 맘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린 제게 축복하고 흡신 뜰 수 있는 늦은 은혜의 비를 주셨습니다. 불과 귀와 마음이 멀어서 나의 의지로는 완악한 주님을 부를 수 없는 패역한 인간인 나를 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없이는 더 이상은 괴로워서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내 의지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마음속에는 단 한가지 선함도 전혀 없는 완악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 저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필요했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새우신 이 엄청난 계획과 큰 사랑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목사님이 그토록 울먹이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외였지, 왜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진작이라 말했는지, 왜 행해야 할 내용이 있는 구체적인 설교는 하지 않고 성경 절수만 찾으셨는지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떠오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거저를 도울 수 있는 항목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거저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를 아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일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심과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속에 심을 수만 있다면 그 다음 행동이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대로 놔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떤 규칙을 내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행하시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 봉사와 선한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벌을 받을까봐 주일 성수와 십일조와 그 외 율법적인 일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의 배반에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들의 가슴에 인치신 그 성령의 사랑하심을 이제 알게 되어 그리스도의 수준에 맞추어 나의 인생을 살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숯불 앞의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느꼈던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풍부히 나눠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의 사랑을 고백해 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요 21:17b).

선지자 예수님

박 경배 (교동부 교사)

그리스도라 함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며, 우리의 온갖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 선지자는 주에게다 다소 생소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피흘려서 싸우기는 주저하고 사랑의 예수님에만 익숙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인식하는 것이 죄짓는 손발을 묶는 것(마 5:30)만큼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내에서 거리가 먼 것이요, 사서적 관점에서는 미련하게(고전 1:25)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선지자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전제 되어야만 합니다. 죄에 대한 통렬한 인식만이(딤후 1:15)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영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골 5:8). 이처럼 하나님의 심정으로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제사장 사역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서 최종 결론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갈 6:14) 천명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2월 9일(화)~12월 17일(수)	L	15교구 3지역	남용철
12월 11일(목)~12월 19일(금)	D	8교구 6지역	이정훈
12월 11일(목)~12월 19일(금)	D	8교구 4지역	이인원

◆ 다음 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2월 16일(화)~12월 24일(수)	L	6교구 8지역	조석구

*선교위원회 방침으로 인하여 국가별은 밝혀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드리기를

안 해 진(청년1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가치를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안정에 두는 것처럼 저 또한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기 선교를 통해 제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세상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을 받은 누군가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은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명령에 저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열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에 막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일일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1-33).

저는 몇 번의 단기 선교로 장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를 갈 때에도 여러 번 선교를 다니는 경험들을 믿고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고만이었습니. 막상 선교지에 도착하니 저희들의 준비가 많이 부족했고 현지에서 맞지 않는 계획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는 실망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해진아!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나의 도구이다. 나는 너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주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끊임없이 일하시고 결국에는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 팀은 사역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 마을을 계속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3일 동안만 사역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고아원 사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그 마을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처음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호기심으로 우리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고아원이라는 한 민족이라는 반가움으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하였고, 복음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이슬람교도들이 많았고, 고아원이라는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무신론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은 노방전도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법적으로 지정된 건물 내에서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 이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영혼을 대할 한 타개움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에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계속되는 만남을 통해 그들은 단한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반신반의하던 그들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가족은 우선회 길을 지나다가 현지 자재의 권유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가족은 천왕과 기도 말씀과 통해 마음을 열었고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나의 고만은 주님 앞에 었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한 분만이 일하셨고, 단지 저희를 추수할 곡식이 많은 이 땅에 추수할 자로 부르시고 그들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길 기도합니다.

인도 선교를 다녀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믿는 자의 사명이요 임무임에 틀림없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오래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누가 복음을 위하여 갈꼬?" 이사야의 고백이 있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날에도 주께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진실한 일꾼들을 부르신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데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군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고 영원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엡 3:7-9).

인도의 '뒤레'라는 지역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다. 우리는 현지에서 빈민촌 및 농촌을 복음 전파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날은 정탐 사역을 하고, 다음 날 정탐했던 사역지에 도착하여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였다. 인도인들은 우리를 기이하게 생각했고, 우리는 인도인들의 생활을 기이하게 생각하면서 접근하였다. "나마스떼(안녕하세요)"하며 접근하자 그들은 머리를 팔자 형태로 옆으로 흔들었다. 거부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담배란다. 작은 초가집에 살고 있었지만 옷은 얼굴에는 순수함이 느껴졌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혼들이 있는 곳이니구나.'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자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전했다.

'뒤레'는 힌두교인이 90%가 차지하고, 문맹자가 40%는 되어보였다. 그리고 마을마다 힌두교 사원이 있었다. 낮이면 우리들은 담배를 피웠다. 가정집을 방문하여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하며 전도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믿겠다고 하면 영접기도를 한다. 어린 아이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전도지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더 모아 울동과 찬양을 가르쳤더니 아이들은 신기하게 여기며 따라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전도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평화가 쉼을 실었다. 오늘의 사역을 점검하고 내일의 사역을 준비하는 질문들을 서로 나누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위해, 내일 만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 후 하루 하루의 일로를 마쳤다. "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만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용 조(인수집사, 1교구)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①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행 5:41)

필자가 학장시절 복음을 전할 때, 잘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잘 전하였지만 복음을 열도당도없는 일인 것처럼 취급하거나 그 복음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말하면서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수그러들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담대히 전하려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눈밖에 태연한 척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한 종교로 취급하는 사람들 앞에서 서면 웬지 자신이 어찌되고 꼬리를 내리게 된다. 그래서 간혹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쓸데없는 다름만 일이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하며 전도를 하지 않을 당위성을 스스로 생각하기도 한다.

초대교의 당시 공회들 한 대사와장과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나인들이 거의 없는 자들이었다. 오히려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며 압박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담당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생각해보라.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는가?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도들을 잡아들였다. 그들은 복음을 완강히 반대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사도들은 왜 그랬을까? 왜 가나성도는 있을 수밖에? 왜 미련하게 쓸데없는 말을 해서 제책을 맞았을까? 그 자리에서 지체없이 침묵하러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사도들은 그럴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사도들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인식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능욕 받는 일"에 도자적 있다. 자각 없는 자는 능욕을 받을 수 없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시라"고 전도자격을 쉬지 아니하시라"(행 5:42). 이것이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 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만약 자기가 능욕을 받아들이는 일이 한 번도 없다면 자신선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도저히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권리가 지극히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자처하여 사역하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있든 없든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라.

(권오섭)

2004년 입법 명단

【2004년도 서리집사 명단】

1교구

남집사

95-1661	강길원	91-224	김건식	95-1318	김경록	4688	김공식
2787	김도원	90-318	김동철	89-998	김명종	90-293	김봉호
94-1025	김성택	89-979	김승규	89-111	김정환	84-1051	김종민
35-118	김장기	92-798	김철준	01-0269	김영기	3411	박광석
84-341	박원준	86-645	박희선	86-142	박병복	90-960	서영호
93-399	서준성	93-1054	성기철	93-1054	성문현	91-762	소양식
85-829	송용욱	89-399	송원덕	85-606	양근식	84-806	임광근
1265	유지철	84-612	이상홍	350	이상재	96-188	이승국
99-935	이홍수	98-1228	이재관	199	이진수	88-816	이진수
89-596	이한재	98-981	이형종	3992	이혜철	90-530	임형호
88-963	장영수	91-1134	장종홍	88-706	전상진	85-926	전 건
98-757	정현욱	3120	정조영	80-623	정창원	02-0092	정종래
2851	조창성	4675	지영일	91-1021	최계열	95-143	최귀태
94-1297	최승민	85-794	최준식	86-422	하남철	89-207	홍종호
94-855	홍순길	93-121	홍훈원	88-717	황선홍		

여집사

91-1009	강 국	90-530	강옥연	87-443	강종애	88-233	강준자
84-1116	고남보	88-940	곽노준	89-111	권미애	89-399	김경성
88-53	김성환	85-348	김경숙	89-079	김민희	81-487	김종순
89-1045	김남욱	84-722	김미자	82-59	김상식	03-0001	김소연
91-381	김승희	97-672	김영란	00-0320	김영아	499	김영희
89-594	김영희	85-150	김필자	96-150	김은자	91-311	김필혜
89-34	김영희	83-617	김현자	84-617	김준자	91-1231	김영자
97-467	김영희	89-1421	최화순	93-1522	최희선	95-1513	김영희
85-829	남경자	93-1020	남주숙	90-293	문미선	98-1212	문선희
79-257	문순학	96-752	문영숙	95-1417	박경희	90-259	박봉연
94-1925	박현숙	94-1297	박진영	01-0269	박희태	94-585	박현숙
81-1255	서혜정	88-1053	소상홍	89-998	송윤진	89-1413	신동욱
89-595	신영자	02-0344	신명규	99-993	신선희	93-1073	신순진
84-839	심효섭	85-519	양남순	97-565	양정숙	91-224	염유신
84-806	염건이	91-762	염명복	92-103	오승민	91-1134	유병희
89-707	유진자	94-724	윤영성	86-228	정 영	95-124	황희숙
99-935	이경순	92-272	이경자	88-194	이국숙	85-606	이명광
98-981	이명숙	95-232	이명희	87-551	이병현	98-1228	이수진
86-125	이영희	93-339	이순희	84-835	이유자	362	이영자
93-1054	이영희	91-1241	이영희	90-318	이정희	89-596	이정희
84-912	이영희	88-1048	이정자	191	이정원	00-0248	이정희
98-757	이혜정	95-162	이화향	96-524	임금순	85-335	임문자
85-422	임영규	80-623	임정자	92-179	임종개	87-503	장순자
86-724	전준옥	93-121	정명희	88-706	전영희	84-612	전옥희
87-59	정정순	92-798	정희선	81-272	조경순	95-44	조경애
89-207	조복선	91-946	조영순	90-990	조희경	84-606	최은자
89-120	최복선	85-684	최희경	91-388	최희자	2787	최은자
92-394	최차영	91-272	최종관	88-516	최현숙	95-204	태희원
4675	홍인숙	4265	황원주				

2교구

남집사

91-1020	강길원	92-303	강종진	79-336	권익선	84-1221	김건원
79-230	전 건	92-1582	김광규	95-191	김대성	87-10	김배규
88-20	김건원	87-208	김은식	1300	김진규	00-0447	김재복
93-1271	김진원	03-0295	김진희	96-1113	김정환	84-692	김재환
98-037	김영기	88-1019	김종태	92-614	류동원	95-11	문종우
2290	김종태	88-854	박재근	93-764	박창태	84-865	배병식
4992	신승태	91-764	신정명	88-706	정영원	96-739	안현연
94-877	원준호	84-233	양승길	88-995	윤승순	92-501	오규준
00-0364	이정숙	95-690	이부수	2885	윤승남	83-669	윤순관
96-1223	이근우	87-682	이희수	7355	이봉주	91-292	이성호
96-468	이수형	676	이승근	89-840	이승복	84-532	이시형
92-1040	이영희	82-744	이영자	84-532	이종복	89-593	이종원
87-352	이홍문	85-820	이홍남	99-247	이혜형	89-71	장경문
99-1134	장성민	81-914	장경희	90-621	조기원	93-2	장동진
98-949	전정현	92-87	조윤성	95-525	정인철	84-40	정종호
82-466	주영범	81-845	최문준	87-331	최현태	02-0286	최희규
89-485	한상재						

여집사

89-1315	강혜숙	85-43	권정자	97-61	김경희	92-178	김귀자
97-608	김길상	98-122	김동진	88-1019	김명숙	92-87	김영란
97-902	김미자	95-73	김미연	97-676	김미영	94-288	김복현
80-745	김성숙	84-492	김성은	93-1271	김성자	1901	김성자
4835	김순자	87-268	김순옥	92-377	김신순	86-428	김혜순
85-735	김현자	92-1413	김진희	91-292	김진희	93-2	김영태
90-586	김영자	94-1974	김영희	00-0291	김영희	4814	김순옥
89-29	김영숙	85-172	김영진	95-1464	김영희	91-1031	김은진
82-744	김정진	82-755	김정순	91-316	김정자	96-468	김현아
94-282	김혜란	03-0140	김혜원	87-682	김희정	90-522	최희자
91-981	김희성	95-11	나성애	92-1272	노희태	79-4	동지현
89-64	류태숙	92-1117	문혜순	84-1050	문용자	89-608	문 희
92-1582	민태선	92-614	박경애	95-191	박명자	92-1291	박복순
89-190	박영숙	86-449	박옥자	79-526	박		

2004년 입문 명단

87-156 오명자	86-578 오명자	86-783 오지현	95-18 우수영	94-523 정연희	95-594 조영희	90-404 조옥련	81-951 진주연
85-240 원용숙	93-1812 유경희	96-731 유미향	97-637 유숙희	88-981 최옥현	97-568 최원혜	88-257 최광훈	95-1528 최종미
90-825 유영자	81-900 유순남	90-307 윤경자	90-49 윤숙자	90-49 최희경	89-578 최현숙	89-963 한주연	91-646 한정숙
3439 윤숙자	95-1044 윤정숙	2798 이경은	93-1548 이광자	94-098 원광자	84-977 홍성진	92-433 홍재경	97-178 홍정숙
83-158 이귀남	85-454 이명숙	95-100 이복경	89-228 이영선	84-431 황발자			
97-609 이미란	94-1957 이미주	86-639 이명성	91-1010 이무주				
80-76 이상숙	88-252 이수인	92-1380 이단숙	86-187 이영순				
94-1000 이옥자	92-783 이옥희	91-842 이유미	91-164 이은경				
91-753 이재훈	95-1740 이 정	80-739 이영자	94-136 이종희				
93-301 이주영	91-500 이창순	757 이춘례	87-653 이준희				
94-1344 이현선	95-253 이향선	91-413 이현실	90-1094 이현옥				
91-693 이영자	975 이호순	93-411 임경자	95-422 임병자				
92-1122 임필혜	89-533 임선영	92-751 장득경	93-266 장예교				
89-144 장갑선	88-291 장순자	94-827 장인경	92-1370 장영자				
95-499 전동영	95-613 전혜숙	91-1197 정영자	92-1339 정윤자				
90-912 정명희	92-1254 정숙자	82-52 조숙임	91-951 조연숙				
87-249 조영란	91-618 조영희	92-770 조윤숙	95-094 조은혜				
01-0135 주미아	96-210 주민선	88-933 주영희	81-163 주영순				
87-844 진영순	95-480 채은선	01-0334 채복희	86-955 최경자				
5134 최경희	96-787 최희선	91-163 최복희	2674 최복희				
94-287 최영숙	90-164 최영경	2801 하복순	98-538 하정연				
85-900 하해인	92-1326 한기희	95-1006 한기희	91-442 한지연				
97-300 홍예자	1442 홍원희	95-691 홍윤경	95-525 홍미진				
96-3 황희숙	86-259 황영희						

6교구

남십자

83-514 강석인	95-367 고백희	92-1167 고재선	91-412 고재훈
02-0122 권하연	91-1302 김 근	98-611 김덕순	82-531 김동희
95-667 김갑진	92-1630 김순자	88-153 김발상	492 김병수
82-527 김병희	85-54 김영숙	85-569 김영진	89-1239 김인현
97-89 김재기	89-711 김진숙	95-8 김영애	89-475 김용학
94-1612 김진희	88-889 김진희	85-562 김희은	82-69 김희은
80-527 김현철	96-286 김형조	86-731 김홍주	84-1274 나동현
91-127 김현철	96-145 남정현	95-356 류정현	91-487 민정현
92-1427 박규철	88-539 박규진	98-1199 박노숙	94-988 박병옥
93-333 박명희	2861 박성진	93-1414 박성진	91-52 박석산
86-418 박광식	80-504 박성진	02-0033 백익인	91-128 백영희
84-1231 변익식	96-909 손영숙	87-742 송광성	93-254 송영희
87-833 송환진	88-965 신광식	94-1111 안대명	91-165 양지영
91-127 이현구	96-620 오은성	95-619 오원진	85-239 우용호
95-150 유정필	90-105 윤병희	86-844 유희자	97-627 이규경
96-57 이근우	2009 이동욱	4919 이병두	96-107 이상경
91-789 이석재	89-726 이상우	89-421 이연구	79-601 이연범
97-619 이옥보	4536 이정자	89-1275 이진규	93-1884 이정영
94-1201 장광호	92-999 장성성	81-1002 장수희	91-372 장성희
97-4 전태홍	98-721 장성수	1260 장성수	89-736 장영재
40-622 조동선	97-123 조성희	86-172 조용수	91-1181 조희경
88-393 조은숙	91-478 차상우	90-527 최규환	5364 최승윤
91-432 최화진	91-485 최 진	813 한성호	5329 한승업
85-648 최현숙	99-905 현원규	89-1330 한동남	96-464 현준규
84-901 황인성	94-640 황하봉		

여십자

86-418 강순금	82-528 강은숙	90-478 고경선	97-776 고희란
88-889 박노숙	89-1082 권연숙	95-8 권연숙	95-356 권효순
92-51 권영숙	95-66 김경실	94-1612 김영경	88-1015 김기복
80-591 김두순	94-1192 김명숙	92-565 김명숙	86-172 김미혜
97-774 김미경	93-86 김명란	92-1427 김복희	91-72 김민희
93-1242 김미경	99-41 김선자	516 김선희	96-1196 김선희
97-330 김숙자	85-569 김유자	89-421 김은숙	92-1630 김은숙
87-833 김진희	88-153 김진희	84-1217 김진경	89-138 김진경
97-619 김정일	01-0153 김종숙	95-619 김지연	95-367 김진숙
94-21 김점숙	82-592 김점숙	89-1340 김점숙	80-504 김점숙
83-520 김희숙	91-319 남성경	86-576 남혜숙	90-116 남혜숙
84-1274 류소정	93-1302 마혜숙	94-1201 민순기	95-93 민정숙
89-1330 박경자	91-427 박난희	95-181 박은희	88-866 박영옥
89-1275 박옥자	92-999 박옥자	86-731 박옥자	92-1057 박옥자
82-527 변대선	85-562 서영숙	1971 소수혜	98-973 신순자
82-208 신금자	83-318 신금자	95-333 안일희	92-1167 안일희
97-89 안연자	1260 안영희	82-490 양금순	487 양숙덕
80-316 양옥자	83-312 엄선자	91-478 엄영애	479 오은혜
84-1231 오현숙	96-146 위금자	91-372 유길자	95-56 유영숙
492 유재원	91-914 유점자	89-1362 유순재	87-741 유금자
89-1144 윤영희	89-114 윤점자	91-259 이강숙	92-532 이금자
79-601 이명숙	83-641 이효남	96-57 이미향	02-0033 이미희
93-1376 이연희	91-789 이상림	85-432 이숙자	91-52 이숙자
4919 이현선	91-128 이은영	94-1111 이연숙	88-539 이영진
89-875 이영숙	96-464 이영숙	95-667 이영숙	88-179 이윤경
91-117 이은숙	96-107 이영희	91-68 이영희	89-1424 이영희
94-105 이화희	81-566 이화희	93-1008 이화희	95-150 이현숙
81-1002 이희숙	80-527 이희자	93-254 이희자	89-1230 임진숙
813 장광호	89-1285 장광남	1310 장광선	92-1332 장부자
93-1414 장진주	91-181 장영숙	95-688 장영희	91-412 장옥림
89-711 장원진	87-742 장윤진	91-128 장정희	83-514 조경숙
92-70 조수연	82-69 조은진	93-1572 조혜숙	96-952 조희진
85-8 주영진	94-310 최숙자	266 최숙자	97-627 최숙자
96-909 최영희	91-609 최영향	95-1130 최영자	89-1253 최영자
92-1624 최			

2004년 입문 평단

역지사

86-688	강배혜	90-922	강인선	3842	강정희	97-242	강재경
91-713	고성숙	93-927	고영주	87-273	권복희	98-104	김경애
89-420	강남희	303	김병중	91-138	김복순	4372	김본연
96-368	강선미	87-373	김진숙	1059	김진자	92-1628	김성자
81-798	김기원	91-1053	김정숙	81-446	김성남	82-808	김영자
80-755	김순련	89-1136	김옥순	84-1003	김영금	92-687	김영아
95-775	김영아	80-553	김영옥	95-1376	김유희	1961	김인한
92-391	김진희	82-441	김정현	97-145	김희자	82-194	김학복
94-35	김희진	92-1361	남규자	93-264	노연경	91-1005	노수자
3592	민영기	85-514	박덕영	4501	박미숙	91-918	박순연
91-1107	박영순	82-532	박은주	86-279	박정숙	81-296	박자화
4783	배순영	87-668	백길자	88-418	백복원	81-940	변명배
01-0275	백은영	4823	변경자	94-954	서성미	96-51	성정혜
93-1673	손이주	83-528	송송자	94-1508	송양일	80-13	신복임
96-281	신은희	94-1962	신정숙	96-450	신하희	86-434	신영숙
93-139	안선옥	91-1111	한경희	89-1137	이복희	88-959	임기자
92-1486	여애자	88-352	오소미	80-758	유영선	85-514	오수분
89-627	오현숙	2853	유희희	87-546	유성남	2853	유성희
82-223	유은경	2648	유종희	85-55	유주옥	80-708	유효진
98-480	유화자	87-371	이경자	87-273	이경희	89-1092	이구선
85-25	이미나	85-567	이복연	4813	이소진	96-1224	이연주
96-585	이영실	93-941	이영희	94-1039	이영희	151	이정혜
93-42	이정희	96-483	이복분	00-0041	이혜경	89-323	이혜경
1221	이흥옥	81-506	임정순	92-1679	장수혜	5192	장순자
86-454	장옥자	91-465	장영희	98-985	전옥순	95-860	전순옥
81-85	정경옥	92-1520	정순희	98-767	조금숙	303	정혜순
84-394	정정근	88-549	정영자	88-1054	정정임	87-504	정혜순
92-1282	조재순	86-280	조명자	3483	조영근	81-759	조영희
90-240	주윤옥	89-1460	지근희	81-269	지복순	83-232	최복희
97-928	최복희	89-839	최희자	80-412	최희경	89-162	최희련
95-337	최문경	4543	최희자	888	최희영	89-1255	최희경
79-247	한성숙	98-57	한진수	85-687	황국남	94-26	황국일
89-290	황차란	86-437	황혜진	92-632	황효진		

5216	박태남	95-1057	박태희	92-1735	박향숙	88-287	박현주
88-795	박혜옥	93-1048	방이영	95-321	박나희	87-166	백인희
92-1389	서정옥	00-0281	서정순	92-1058	송기화	80-416	백복희
93-204	손여란	85-430	송순애	2852	송정순	4583	송경자
86-24	송정희	4759	신정자	84-247	신은자	98-1066	양희옥
80-187	오광순	81-234	오수미	95-369	오영미	83-316	오희옥
85-395	우태보	357	유덕선	80-797	윤선주	84-538	윤원숙
84-988	이복순	84-56	이덕선	89-230	이명혜	02-0199	이복순
89-960	이계옥	83-112	이진자	92-1406	이연성	95-784	이현진
92-1245	이연희	89-364	이영희	01-0346	이원자	89-935	이유진
92-1569	이혜경	92-47	이정임	85-892	이정숙	89-451	이정숙
87-294	임난향	81-118	임수자	83-629	장순태	1212	전순희
80-792	정금자	1409	정애화	84-541	정영애	92-261	정옥련
81-16	정진선	1365	정정희	2096	정태희	86-705	정형심
85-707	조순희	2541	조미란	93-706	조인혜	84-1011	주승정
88-625	지선희	3338	전희자	97-890	최희민	94-238	최희순
91-511	최향옥	90-713	최옥희	84-666	최희자	93-1462	최향숙
87-621	한은주	80-72	한영란	93-1736	한영숙	92-652	함화자
83-330	하혜균	84-643	황영숙	82-79	황원옥		

10교구

남십자

93-112	강병모	2880	강신근	81-1022	구승희	2882	권기태
1114	권석태	2882	권순선	81-144	권영진	81-999	김광주
83-666	김기환	3250	김태환	90-5	김덕원	97-31	김동희
2400	김성남	99-454	김영경	82-328	김영실	82-328	김현희
89-1216	김진희	81-514	김정희	82-520	김종식	83-613	김원태
94-292	김홍기	93-315	남남숙	794	노명남	81-755	문송진
2380	박기훈	90-444	박수영	89-1368	박득진	97-281	박희진
80-56	박용경	91-81	서연진	97-158	송광용	4998	송효종
83-176	송은규	92-1753	송정희	79-156	신현숙	87-224	안문근
2948	이현향	97-575	오영진	4842	오혜진	87-613	윤복희
82-625	이상민	4422	이상남	84-858	이성숙	86-4	이영희
81-435	이수진	5248	이혜자	84-101	이혜화	91-80	이정호
1408	이준성	88-22	이철화	93-1327	이필우	86-123	이현봉
4405	이희자	555	장대석	1588	전진기	2828	정동주
4240	조보경	88-1134	조순현	95-244	조종근	79-40	주나진
226	차광순	91-983	차정경	93-933	최향옥	1933	하재명
803	한승호	3465	한종구	777	한종원	79-566	하영남

역지사

82-328	강보현	81-38	강석분	79-221	고명옥	4405	구덕희
81-999	구영희	95-244	권영실	803	권영진	1546	김경애
81-458	김계자	79-40	김달수	84-1247	김대희	83-176	김영자
97-909	김복수	94-1310	김미자	1856	김세희	413	김수영
92-1753	김진희	86-4	김진희	81-514	김재옥	89-1563	김용혜
01-0468	김윤희	94-98	김종숙	3465	김진자	794	김정자
83-666	김정희	82-625	김진희	82-842	김진희	98-1134	김진희
86-123	김현옥	90-444	김형숙	4360	김희숙	4766	남매자
93-112	류원란	82-621	마하희	82-328	민병옥	89-1368	박미라
91-207	박수						

2004년 입법 명단

92-584	서동희	3360	서명숙	92-1278	서복남	98-210	석영자	94-718	김영규	85-405	김영환	1906	김원봉	92-180	김이경	87-525	백근은	85-103	서삼욱	86-293	서세경	86-611	성지현
93-82	성상미	80-323	손경순	93-729	송보안	49-111	신동미	90-970	김영선	00-0324	김관봉	88-339	김학숙	03-0259	김영일	88-306	송미향	96-1254	송혜숙	92-347	신선진	92-1265	신창숙
86-303	신은희	95-622	신금봉	4398	신복수	79-124	안경자	81-654	남일성	96-980	도상훈	2021	문윤수	81-762	박명덕	93-213	양영숙	93-626	양영애	92-435	이영심	94-314	오기남
84-956	안명숙	87-745	안정숙	4875	안효진	91-69	양정숙	88-281	박산홍	95-1427	박희숙	97-146	박영숙	91-23	박상진	87-487	오경자	89-1160	오영자	93-103	오형심	91-226	윤종옥
80-61	양자영	89-42	양영숙	93-1244	임경숙	82-148	여정자	94-108	홍동락	47-110	봉기성	2601	서상근	96-658	상남인	98-1049	이영숙	95-501	이명자	80-449	이명진	89-279	이민원
86-10	연애연	1636	윤은숙	93-1652	전형영	82-834	유정자	3291	신정미	91-362	조수인	83-137	안 국	87-559	양부성	95-723	이상숙	98-324	이상자	82-732	이성희	92-326	이수연
83-311	윤유희	4922	이미경	82-445	이귀진	81-284	이금수	93-1188	유옥희	95-0173	최정훈	2101	유기근	519	윤석구	98-401	이영순	94-596	이효룡	90-475	이영희	89-425	최정숙
277	이명숙	86-656	이미경	90-678	이미영	91-271	이성동	87-427	윤해근	95-1517	이정길	1836	이규진	85-636	이재민	98-1068	이영희	81-379	이정숙	92-482	이준식	96-958	이해경
85-503	이상순	81-337	이선록	89-1072	이선옥	85-964	이현향	91-735	이현호	90-326	이병무	91-278	이상남	93-139	이환근	95-1695	이호임	84-475	임남배	92-63	전진현	94-901	정경애
90-759	이영숙	82-585	이순자	89-507	이순자	88-808	이수희	3334	이인경	93-120	이지도	97-349	임광민	91-187	장승진	96-142	최화자	93-151	조숙애	92-1135	조옥자	93-988	채종숙
44-2	이애영	91-767	이희재	4230	이희영	87-80	이영남	96-93	전경진	90-362	김정호	84-943	정종호	97-237	조성성	92-174	최희경	92-675	최혜숙	85-653	최혜선	93-461	최정숙
84-907	이영숙	85-647	이영자	5267	이옥자	01-0020	이순순	86-742	주성숙	87-811	최원길	89-765	한병구	79-520	한원길	87-17	최원진	3136	추순옥	89-1427	하명영	84-179	한민준
87-707	이자경	99-1019	이영애	97-290	이정은	92-382	이재석	80-25	황정길							87-286	한성수	83-627	홍갑순	93-1575	황명자		
4204	이종진	4204	이홍숙	95-41	이희경	84-1189	임신자																
3820	임정숙	94-95	임태영	90-994	임효진	91-476	장진영																
4577	전영숙	3419	전희자	94-691	장경민	88-989	전영옥																
92-240	정경숙	88-10	정경희	4041	조복순	97-136	조순연																
81-355	조은희	94-502	조청자	94-1558	지우정	93-77	전옥란																
2396	최귀실	84-152	최희숙	00-0702	태경라	91-449	한금자																
03-0281	한명자	80-465	한혜연	90-180	한원자	89-116	하종순																
1608	홍소자																						

13교구

남십자

82-405	고근하	83-115	권오영	96-1005	김요셉	98-917	김경동
84-1348	김기복	86-55	김동성	89-1489	김보수	96-64	김영희
91-426	김유석	4100	김종민	80-292	김중근	90-117	문수익
92-164	문문수	96-303	박노익	82-454	박명근	4936	박상태
84-494	박승규	89-325	박지숙	84-1120	박찬규	2070	박한길
87-455	박희환	90-553	양숙숙	86-629	오봉식	86-620	오철민
84-53	유기성	89-841	윤복식	448	이명봉	4634	이승광
94-1948	이영무	88-844	이영민	85-931	이영희	90-118	이종민
3609	이영민	00-0203	이재형	92-1391	임길순	81-753	임동태
87-624	장동규	89-1429	장인희	3883	장인철	80-40	전수순
82-739	전인원	88-699	전종수	99-112	정명호	99-964	정 준
92-816	조순준	2744	지광성	561	최귀옥	89-1430	최용운
5035	최정진	87-50	최창하	87-476	최준호	88-2	하상구
82-438	한민수	95-505	홍금철				

여십자

546	강소영	84-395	강미화	99-112	강은숙	82-438	고희자
98-329	구국남	81-753	권애민	97-910	권이관	86-455	권현주
90-117	김남수	85-784	김동순	92-317	김민수	84-54	김미애
03-0278	김기복	88-699	김성애	96-64	김수연	95-505	김민영
97-272	김영숙	83-274	김영희	85-931	김위자	89-1552	김연희
84-1348	김정숙	86-304	김정숙	83-359	김진애	85-908	김현민
83-177	나수순	82-454	노명숙	87-455	박미혜	92-208	박상남
82-739	박기복	93-1933	박진희	85-620	박미혜	89-1106	박영희
94-1948	박순수	90-118	박희숙	99-964	박희숙	300	방순애
97-311	배영진	93-40	서금순	86-405	서덕순	84-190	서정숙
81-564	서혜경	5035	장영희	81-283	신복식	83-571	신정숙
90-917	송정숙	93-1274	송정숙	92-816	신성미	96-332	신혜숙
87-624	심정숙	448	윤은진	81-794	윤은진	92-1252	양정숙
89-465	오민숙	97-585	오부자경	84-494	오경미	90-553	오정희

2004년 입권 명단

17교구

남십자

1492	강만성	92-1654	강종열	98-066	고경만	89-625	공용욱
03-0263	권 일	89-069	권 진	90-767	김재호	84-1194	김경태
95-1187	김남호	92-1747	김태곤	92-705	김태인	49-066	김종만
84-1084	김명재	82-683	김성욱	88-695	김승배	95-554	김윤석
82-487	김일주	50-44	김재경	86-590	김재덕	89-651	김정기
1091	김준호	81-985	김형철	92-150	김형진	92-954	김홍식
00-0509	나기태	50-12	나상윤	41-28	노기철	92-62	노은영
94-1140	문승우	90-665	문경만	96-1011	민보근	21-45	박근원
89-1099	박문진	87-437	박병진	92-1143	박성진	83-34	박성호
02-0385	박운범	93-8	박유근	93-680	박정우	85-870	박종구
87-842	박종현	90-1113	박준만	93-409	박희원	3-661	배현수
93-1175	서해길	94-1134	석익철	88-627	송근태	89-829	송인호
00-0106	신한식	92-1210	신태홍	89-30	안덕호	89-626	오형근
4667	유재훈	86-122	유원홍	85-934	윤은경	82-484	이광호
89-1122	이만식	3-065	이명재	16-42	이성영	92-149	이상한
82-614	이상진	88-230	이석재	94-489	이승배	81-175	이태경
91-300	이재환	81-896	이정근	00-0095	이정환	37-45	이종갑
4641	이정우	2869	이영희	12-107	임영준	98-940	임정환
78-733	강제순	88-610	전영수	95-115	전진길	97-144	전경수
88-751	정대은	03-0208	정윤식	18-09	정호준	90-839	정호현
86-230	최용익	85-65	유관식	92-850	표보라	92-736	한석진
3395	한영진	87-603	한홍진	88-505	현봉식	84-799	홍종국
2464	황충식						

여십자

92-954	강진영	88-751	강석주	21-45	강숙희	94-245	강인자
97-686	고유영	82-487	고지현	89-1236	고효영	95-554	공희숙
00-0106	구영숙	00-0331	구윤지	00-0496	기현주	87-842	김광배
90-839	김남순	84-559	김미자	02-0385	김미혜	87-534	김진영
87-549	김성희	79-385	김순이	93-409	김순자	89-651	김영남
82-825	김영순	3807	김영주	3-661	김영희	86-230	김영희
84-572	김은영	88-685	김재남	31-75	김재경	1091	김종남
81-590	김진희	85-416	김정순	80-665	김정숙	84-628	김진희
88-627	김현정	79-385	김혜숙	97-144	남계순	91-300	남영숙
88-320	명신태	94-1480	박계인	50-12	박계순	95-110	박미경
4586	박남순	89-829	박성범	83-320	박수진	92-62	박영희
87-603	박세경	86-122	박종은	88-695	박종순	84-1194	박현숙
93-8	박종현	98-201	변명자	84-225	박종자	89-625	서정애
79-15	정길호	88-610	송영복	91-954	송인복	95-329	송희순
80-672	신석훈	85-870	신승하	89-1122	신숙진	89-1506	신진희
81-536	신지현	98-733	양은혜	89-626	양영정	92-736	연은경
85-119	오인숙	84-1039	오정자	89-1099	우영희	2869	유기영
1515	유영희	84-1022	윤경준	92-1143	윤미경	91-283	윤지영
92-1210	윤영미	83-448	이경숙	92-105	이현숙	00-0323	이명희
5345	이순옥	90-665	이영자	84-63	이옥녀	93-229	이옥숙
88-609	이순옥	92-850	이영자	03-0208	이영자	81-896	인정숙
84-1262	임영희	49-66	임창순	89-664	김정숙	87-437	장순희
82-933	장정자	83-419	정선하	93-802	정순자	94-1134	정은혜
95-115	정현희	870	정현자	3395	조복순	96-1011	조경숙
92-1610	조혜경	4641	최경숙	93-1175	최희원	00-0237	최박경
92-1654	최진자	4667	최영자	4438	최영미	90-134	최조삼
00-1113	최희숙	3410	한경분	84-1280	한혜진	94-1149	한보은
82-614	한성희	1492	한옥봉	90-767	한은숙	89-30	현명희
95-80	형남진	91-821	황원길	84-1084	황은미		

18교구

남십자

92-537	강성희	86-558	강언주	98-427	강지현	95-1735	구자관
98-1082	권민도	87-831	권영일	96-881	김경준	3835	김광만
88-23	김길진	92-1644	김동주	28-44	김동주	86-566	김상열
81-474	김성호	96-709	김영길	79-415	김종순	2285	김재일
95-849	김정호	99-11	김종훈	93-698	김진희	85-705	김진영
91-822	노준호	88-151	박경민	92-1743	박기현	03-071	박홍식
88-293	방 익	92-421	배병호	94-169	백승환	94-1121	백영방
84-1044	손병기	2995	송병호	84-632	송남규	5113	송영주
4409	안영희	82-96	안영숙	90-1035	안영준	89-600	이영호
559	오경철	80-243	오세길	80-243	오일식	96-509	원종삼
91-1118	유진호	89-174	이기웅	92-756	이동규	92-729	이성근
88-192	이재현	1254	이재욱	81-864	이종훈	99-230	이태현
79-9	이혁수	88-212	이희규	82-129	임광진	2055	장두원
79-567	정영숙	92-471	전도진	3006	전남진	92-1004	전석환

79-294	정대호	88-654	정문태	1892	정영현	95-1489	정윤준
85-617	정인상	95-841	정재경	659	정영호	88-868	조규진
95-1799	최신남	84-463	한운식	87-113	허형철	90-668	홍석갑
89-785	홍성국	85-424	황덕진				

여십자

87-831	강영자	90-4	강영희	92-756	박진희	659	관승미
81-172	김윤주	94-199	김경숙	89-174	김경자	81-48	김금숙
91-484	김미란	91-1132	김삼희	4171	김신영	94-678	김성자
92-475	김기순	95-1735	김신영	93-072	김진희	93-1795	김옥자
87-168	김용열	92-441	김진현	88-212	김진숙	81-389	김정숙
94-961	김종만	81-474	김지연	92-729	김민아	81-864	김진아
88-293	김필숙	94-1584	김현희	90-1035	나은혜	90-112	라순진
97-542	민정순	86-546	박경숙	93-185			

2003년 입문 명단

【 2004년도 각 위원회 입문 명단 】

당 회

서 기 / 노광현 부 서 기 / 이형수

예배위원회

위 원 장 / 전홍렬 지 도 / 여국근
서 기 / 황희만 회 계 / 정창길
위 원 / 오진국 최기홍 김단용 배준식 이실호 박찬섭 최지윤 신상수 김영은
실행위원 / 이호일 장승규

예 배 부

부 장 / 최기홍 위 원 / 오진국 최지윤 신상수
자 장 / 안성영 위 원 / 장승규 손진섭 박범익 박준근 한용배

1부 예배 / 조장 강진택
2부 예배 / 1층 조장 안성영 2층 조장 황기용
3부 예배 / 1층 조장 노태경 2층 조장 안노수
4부 예배 / 1층 조장 이호일 2층 조장 김은철
5부 예배 / 조장 김해길
찬양대 / 조장 심화민
수요, 2부 / 1부 조장 강진택 2부 조장 안노수

성례부

부 장 / 김단용 위 원 / 김영은 교역자 / 한영준
자 장 / 안성영 황기용 이호일 김석윤

1조 조장 / 한계식 조원 / 박영일 김민숙 김은숙 조종선 이인숙 유선덕 이종영
2조 조장 / 신영은 조원 / 구옥자 우경자 라영실 조복덕 이오목 구정희 안정자
3조 조장 / 임옥환 조원 / 이영숙 정주한 이미재 문예자 변성숙 이영숙 정진미 이경남
4조 조장 / 신효숙 조원 / 박효지 김양자 김은숙 정복순 이숙화 성부자 이한복 최선자 백영기 문민란
5조 조장 / 이인숙 조원 / 최영득 변근순 변옥희 남경애 박영순
6조 조장 / 조 소 조원 / 민진식 임근애 저순애 한영덕 염숙현 이순일 최 규 이영영

안내부

부 장 / 정창길 위 원 / 이실호 교역자 / 정연희
자 장 / 이승재 정은희

1부 예배

교역자- 목사 / 최성규 조장 / 김경연 조원 / 조옥자 최문실 강덕림
조장 / 김인희 조원 / 김영호 이한재 강태영

2부 예배

교역자- 목사 / 조규호 조장 / 신동자 조원 / 김연식 홍순애 이수경
1층
조장 / 박복림
조원 / 강석화 김홍수 문두옥 이승득 이양호 박경희 김재윤 김희경 김옥연 송영삼 한영숙 조우성 김명집
한영란
2층 조장 / 오미애 조원 / 서상미 이미숙 고성숙 윤효순 모숙현 이경희

3부 예배

교역자- 목사 / 이재영 조장 / 김경자 조원 / 김말자 장해구 전은희
1층
조장 / 박복림
조원 / 김현근 이영구 김중서 권영일 김재영 노규식 원종삼 김영길 윤향중 홍경숙 한정희 김유자 유현숙
민영희 김희수 김명희 조연이 김경숙
2층
조장 / 윤석구
조원 / 김성진 김성수 장완구 이옥자 김영연 윤현숙 김순자 서옥선 조영태 권영남 이형자 강주원

4부 예배

교역자- 목사 / 이상진 조장 / 한영준 조원 / 윤인숙 강덕림 김영은
1층
조장 / 최만우
조원 / 이승재 박재현 김경순 김순자 이상준 전명식 김영숙 한기희 윤자옥 정송향 박세애 서해경
배정숙 이만순 강석준
2층
조장 / 조운성 조원 / 지정록 김미현 한상재 최은희 양삼순 황정희 김재명 김경희 김순애

5부 예배

교역자- 목사 / 정충진 조장 / 오경희

조장 / 단진성
조원 / 전성동 김소연 강현정 이미희 조성이 손향아 박소혜 장태은 윤석원 김효인 김지호 권동희 박경진

찬양 예배

교역자- 목사 / 양재동 조장 / 권은희 조원 / 정연희 윤인숙 안태순
조장 / 강만호 조원 / 박석봉 강석화 노수식 오수민 김명성

수요 1부 예배

교역자- 목사 / 안지현 조장 / 김연식 조원 / 이옥주 정연희 김말자
조장 / 김영숙 조원 / 서옥선 서해경 도수자

수요 2부 예배

교역자- 목사 / 이태복 조장 / 홍순애 조원 / 이수경 전은희 김영은
조장 / 구재환 조원 / 구원섭

금요 집회

조장 / 이상해 조원 / 강두형 구원섭
새벽기도회 월화 / 구재환 장용희 수목 / 구원섭 이승득 금토 / 김명성

헌금부

부 장 / 황희만 위 원 / 박찬섭 배준식 교역자 / 김영은
자 장 / 박종태

1부 예배

교역자 / 안태순 조장 / 최세진
조원 / 신진주 권오준 강재춘 한민혁 김재홍 김양준 박석봉 윤영일 윤현찬 윤종국 강두형 장금숙 김홍준
나승은 윤병식 강석화 김상철 윤상철 이기욱 이세영 이정태 강진원 김영환 박원희 김철남 최민식 백봉선
김해길 심화민 김인술

2부 예배

1층
교역자 / 장해구 조장 / 양명옥
조원 / 이현선 김옥선 안상익 정순옥 조종연 한만식 신명자 권경자 이영자 정옥화 최진화 최문홍 이숙희
강혜숙 조윤정 김경순 이동심 정승진 공경자 정효식 강경일 김숙자 강종숙 강영자 이현주 송경옥 배연식
이달순 정효진 이경자 장병택 장경옥 이은교 안숙자 조준민 문영숙 공효순 김경수 김영숙 김희진 김봉재
지인숙 김순자 안수자 김경숙 정복순

2층

교역자 / 김경자 조장 / 이강근
조원 / 최 규 정영현 이정희 박유환 박은숙 조운숙 김일중 강은희 강일현 윤경자 반연숙 오형식 최환산
고명진 김재춘 문득만

3부 예배

1층
교역자 / 김영은 조장 / 이명숙
조원 / 강인영 함화자 김영환 주영선 최경자 노분선 김재순 문미선 이명재 김현옥 이금수 김영미 신희림
임진숙 김석자 이덕실 한현주 고미자 강중자 박일재 김민단 김경수 임광순 김화순 남일홍 하발영 김순남
김지순 박경혜 김효자 김주분 안오식 정경자 최현숙 박귀원 이영숙 이형찬 이수정 배귀녀 이삼세 박재순
고명옥 유봉순 김홍순 박재숙 백남식 김희숙 김경태 이순남 김희옥 서금순 이광주 김순자 박영순 김연희
김경순 한금태 민정순 신효식 김경복 전복실 이동연 박현주 박태옥 박광식 김경숙 박광조 정은희 최순자
이현복 박영희 이희향 유병희

2층

교역자 / 한영준 조장 / 박광자
조원 / 조남일 이영의 서경자 홍복기 송해숙 윤정중 남상인 김선애 김경호 송문식 김현자 이성옥 이문구
이모남 김재경 백종은 김현숙 김경익 김경자 문영남 정길례 고효영 김자금 최병호 홍정순 최영옥 임향순
황호선 박갑자 신조자 정영태 임삼애 이순일 최경자 박영남 김지연 이완근 김경숙 박종숙 손복희 김상호
김숙자 김옥자 홍현희 이경애 공석생 이인호 서해경 윤종섭 정영숙 변기성

4부 예배

1층
교역자 / 신동자 조장 / 김현준
조원 / 정철석 정상일 박민자 김성희 이경자 허인순 구정희 성춘순 박복숙 전운옥 한정옥 김윤숙 홍현숙
이수자 장순자 방신자 김진희 김진향 고임순 김영미 김민란 함자옥 차명선 김명숙 정영태 박수정 함민단
안순옥 송영자 조유경 이종희 김수정 권귀순 박경자 김동희 김월남 이옥자 박정희 김우중 이희우 임희로
강종애 이영자 허정숙 백예순 최홍배 김영주

2층

조장 / 홍순애 조장 / 강 옥
조원 / 김명희 서영자 변경희 송윤진 이기애 박귀순 나경선 이규자 이해주 이분옥 최광숙 권옥이 정경자
김경희 양정자 이보희 김순옥 여정자 장금자 김희자 강석봉 임도하 김봉덕

5부 예배

교역자 / 이수경 조장 / 박종태
조원 / 윤재우 이동희 박수정 박경옥 이혜진 박진희 최희나 조상인 김승기 정희숙 김현도 안경호 김명미
김정은 김아란 김국태 이강희 박효원 박주희 이신화 조윤민 이화경 안윤정 송민규 홍정민

악장 / 이에스터 편곡 / 백선욱 총무 / 권택원

2004년 입교 명단

예본찬양대

대장 / 김구형 부대장 / 홍원석 조혜순 총무 / 주순희
지휘 / 김혜선 반주 / 주자의

소프라노

김예진 김윤경 김지선 김현정 박은지 양효진 이미영 이민정 이혜원 장수정

알토

김성은 김삼남 김유영 김현선 문영인 백지수 오민영 유신아 이수이 임심미 현슬기

테너

김희철 박상준 서동혁 유용성 이지훈 강진호 한태범

베이스

강재구 권도형 김용성 심재승 안준홍 윤태원 이상구 이슬기 이지훈 조요셉

예본오케스트라

악장 / 이영훈 편곡 / 민경나
대원 /
강지은 교혜선 김진희 오미가 이신림 이지윤 최하나 용지현

호산나찬양대

대장 / 양신자 부대장 / 이화자 총무 / 이영숙
지휘 / 서순성 반주 / 김신영

소프라노

강순희 고효희 김경숙 김성아 김성자 김소연 김숙자 김순자 김현수 김은숙 김재명 김재숙
김혜희 김혜정 남경자 박경자 박영자 박인자 박차와 박희숙 박진숙 박정숙 박순자 박영희
서영남 서희자 성순숙 송신숙 신영자 신영희 안경희 안정희 양신자 양신자 양신자 우병희
유춘심 이규자 이순일 이종희 이주형 이종영 이화자 전성설 정찬설 조영자 최경순 최숙자
최정자 허인순 현재식

메조소프라노

김순은 김혜정 김은숙 김지현 김효자 노정자 노혜경 박명엽 박복수 박순옥 박신자 박숙자
설복은 양옥자 염숙현 오경희 윤 윤 손 이봉선 이영숙 이인숙 정금숙 조용기 조은진 채혜선
최말철 현관갑 홍명희

알토

강은희 구영희 금오순 김경자 김금숙 김봉숙 김성도 김영자 김영희 김외숙 김희수 백영자
신소자 산경선 안경자 이수덕 왕덕자 이규숙 이수자 이영영 이형주 강명숙 권신덕 최희자

실로암찬양대

대장 / 윤석민 부대장 / 권영주 김중자 총무 / 정영덕
지휘 / 백인수 반주 / 임효선

소프라노

권은미 김동심 김동주 김진자 김소연 김은신 김절혜 김경연 김중자 김혜경 김혜숙 김희숙
마미와 박진경 박성순 박경애 박효진 김은진 변해자 순영숙 안종남 오명자 오은경 이상덕 이숙희
이유주 이영희 이경애 임윤숙 장재구 전수연 정은숙 정연희 조진순 최영일 최종란

알토

곽노경 김경숙 김달자 김성자 김영란 김영은 나선정 문하숙 박성희 배소영 백애순 백지현
윤인숙 이미화 이성희 이숙희 이혜숙 김영은 최정미

테너

권병철 김교성 김용덕 김정수 김익한 김철환 박노홍 여성기 위건광 윤석연 이상주 이세영
이재영 이태복 이희식 황일선

베이스

고광환 권영주 김신국 김형훈 김형근 나광영 류병복 방종운 박홍규 장 훈 안창덕 안치원 양재용
정충신 정명민 조규호 최성규 최유관 최종철 이종철 이 훈 일원덕 하종철 오상덕

핸드벨 연주대

대장 / 김승옥 총무 / 이복희
지휘 / 송재원

대원 /

강미경 강부희 공진규 권동희 김내인 김다희 김민애 김선영 김진주 김영준 김영재 김유림
김유송 김보수 김지호 노주원 박경진 김미연 박지용 박지용 박지용 박지용 박지용 박지용 박지용 박지용
이나연 이두리 이미연 이경표 이종현 이지연 이현복 이현숙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정지혜 정은진 정지영 정지현 정지혜 정한나 조나연 조수진 조혜영 차병석 차병철 한애리

만도린 연주대

대장 / 이연순 부대장 / 구영희 총무 / 최근준
지휘 / 조태수 편곡 / 김영아

대원 /

박숙단 권영자 구영희 권미선 김경숙 김대곤 김병선 김미연 김진선 김숙자 김순옥 김영향
김옥기 김은주 김장숙 김창숙 노순옥 민주영 박귀숙 박종영 박순복 서성미 서진희 서진희 서진희
신혜옥 안준호 안경자 오영자 오미영 유병수 유영준 이경자 이도희 이명희 이연희 이영준
이정자 이정애 이정자 이은하 임진숙 전혜숙 진영선 최경숙 최근기 최정숙 최영숙 한영숙 한은미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 / 원용철 지 도 / 장 훈
서 기 / 박찬섭 회 계 / 노영한

영아부

부장 / 김연근 지도 / 이옥주
부감 / 김성호 이상옥

남교사

전선숙 박옥현 김광석 백재홍 성낙원 이상경 이재준

여교사

김신영 김연옥 김경임 박미경 박미영 박선영 손순자 손주현 송해경 유용숙 이윤이 이혜정
임영숙 조은정 조현숙 최선경 최숙자 최국현

유아부

부장 / 김철환 지도 / 김정연
부감 / 구재한 장영지

남교사

박종은 유정범 장재호 지성광

여교사

고혜원 권애스티 김광미 김두연 김경희 김현경 노재희 민병옥 박명란 박미숙 박선영 송화정
안명숙 유주옥 윤미주 윤선주 이마나 이주희 최혜숙 히에스티 황은정 황해진 황해진
정재화 정희리 조옥련 조혜원 자은진 최혜숙

유치부

부장 / 임창식 지도 / 조옥자
부감 / 정원근 손유비

남교사

김남원 도상훈 오순도 이상진 이진섭 이창희 정희윤 함충기

여교사

강성영 강장자 김명희 김소희 김명미 김예순 김옥희 김은정 김형옥 김희종 노미숙 문애숙
문지현 박정숙 안정숙 안정숙 안지영 안지현 오영자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정애 이진애 이혜숙 임지혜 전숙영 정은미 조한나 최금실 최은진 최은진 최은진 최은진 최은진 최은진
허민정 홍영월 홍화숙

유년부

부장 / 김중선 지도 / 안치원
부감 / 김형곤 김유순

남교사

김병호 김중원 박병철 신태홍 유영근 이재욱 정금준 조규하 최희원

여교사

김경남 김규원 김미숙 김성은 김소희 김현희 김현은 김영호 김주연 김지희 김형숙 도순애
박신화 서미미 손영주 손혜경 송정희 신동미 엄유순 예은경 윤지영 윤지영 윤지영 윤지영 윤지영 윤지영
이영자 이영화 이현영 이하나 이숙자 이희선 임은미 장용분 권영진 권영진 권영진 권영진 권영진 권영진
최은숙 최한나 최성진 최영자 최지숙 함수정 함수정 함수정 함수정 함수정 함수정 함수정 함수정 함수정 함수정

초등부

부장 / 송두섭 지도 / 정충신
부감 / 지규성 이종영

남교사

김영환 김하경 문원준 송병열 오혜섭 이윤희 한석연 권원식

여교사

구명숙 기하경 김금순 김두순 김미경 김보영 김순곤 김순연 김재순 김지은 김진아 하민희
문현정 박민희 박연숙 박진정 부경란 석경림 송영복 신명길 오귀봉 오정희 이미경 이미화 이미화
이숙옥 이연설 이원설 이연숙 이연숙 이연숙 이연숙 이연숙 이연숙 이연숙 이연숙 이연숙 이연숙
최종남 최주영 한재순 함미자 홍현기 황여림

소년부

부장 / 고승균 지도 / 장 훈
부감 / 홍성숙 김영숙

남교사

권태복 권현희 김준현 문봉만 박찬서 박준만 박종식 양승복 오재원 윤석원 이태오 이동국
이상배 이상배 이상배 이상배 이상배 이상배 이상배 이상배 이상배 이상배 이상배 이상배 이상배 이상배 이상배

여교사

김경희 김복순 김연정 김숙남 김용조 김경남 남용성 박순미 신영희 심신은 윤경희 이명주
이영희 이용주 이윤희 이은경 이희분 정세복 장재현 정원남 정원남 정원남 정원남 정원남 정원남 정원남 정원남
한정숙 허다원 홍승연

중등1부

부장 / 박성명 지 도 / 최종철
부감 / 김홍기 박옥자

남교사

전동희 김창환 김태진 박민국 박성진 양한원 이광원 이덕용 이상급 이윤복 이정진 임병준
장현민 정종원 조은재 조지용 최은익 최금성

2004년 업권 명단

여교사
김시영 김성은 김소연 김영숙 김정운 김현원 라은원 박소혜 박수정 박현순 오광순
이미숙 이보람 이시라 이상숙 이용순 이정은 이희순 임지선 전혜선 정연희 정영옥

중등2부

부장 / 신광철 지 도 / 이희석
부감 / 박용기 김경희

남교사
김기태 김명철 김명훈 김아은 김종훈 문석호 문운수 배종락 백상의 손영호 신철우 위철홍
유국현 유택봉 윤병식 윤병일 임대혁 정기락 정달영 정진곤 한홍연

여교사
강영희 고진순 구자은 김누리 김달수 김영희 김진순 김혜진 오민선 유명숙 이진아 전해상
정주연 최영진

중등3부

부장 / 박승길 지도 / 양재웅
부감 / 강대영 김순임

남교사
김세종 김원국 김정일 남중호 노성길 문재연 박동민 박봉연 박성호 박순모 박관수 신용한
양효민 이강재 이광국 이준수 장남규 장진용 장성호 권 석 하정수 현준봉

여교사
강여경 문희희 박경아 박경옥 박경진 염소연 오미영 유미경 윤화정 이정희 정애선 장은희
정하나 정현라 좌경아 한성희 홍종조 황은선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 / 김구형 지 도 / 안창덕
서 기 / 진홍용 회 계 / 고재승

고등부

부장 / 김구형 지도 / 김정수
부감 / 홍원석 조혜순 교역자 보조 / 오경희

남교사
강문구 강신선 권현우 권 진 구수희 김경섭 김태용 김영모 김현용 김재경 박경배 박종윤
유병규 윤봉길 윤 웅 윤계진 이무열 이병두 이석종 이창선 이준식 장인희 정재옥 최대환

여교사
강예스 강영자 좌도윤 구자의 권지현 김명주 김진자 김창옥 김혜선 나성에 박윤정 방미애
변은경 변태현 서은숙 성명선 손인순 송진경 양소숙 양희옥 여신자 오숙영 유길자 이현희
이단비 이득혜 이숙희 이만영 이미애 이보담 이복순 이연희 이영숙 이우주 이재민 이찬희
장남희 장우민 정경애 정경희 정찬설 정희공 조은비 주순희 최난희 최정미 한 숙 한유리

대학부

부장 / 진홍용 지 도 / 안창덕
부감 / 양기수 김은심 부지도 / 이수경 교역자 보조 / 김민철

남교사
구세훈 김현배 김대현 박교상 백경섭 염현민 유종민 이관우 이상해 이종훈 임성봉

여교사
강신애 김성화 이희주 김민정

청년부

부장 / 고재승 지 도 / 김용덕
부감 / 문영규 원길자

남교사
박승산 변성주 우명화 이동준 이신환 이재호 주재상 최창하

여교사
권예스 김금숙 김명희 김현정 남정애 동지현 박희희 신인순 안복남 오경진 오미라 이현숙
장은숙 장은옥 장진녀 조한글 지아연

제3교육위원회

위원장 / 임필성 지 도 / 김영훈
서 기 / 박덕양 회 계 / 조종환

청년2부

부장 / 이정우 지도 / 위건량

부감 / 박필래 윤수원

남교사
강지현 김영목 김경주 노충현 박찬옥 박홍식 서수길 오수민 윤상규 윤상철 이옥필 이재관
장재호 정재영 최경하 최낙은 최대환 최용길 함경두 홍기철 홍용성

여교사
공정자 권정옥 권현주 김민정 김정숙 문학화 박미향 서인순 서자화 양은혜 이도연 이소희
조주연

장년1부

부장 / 최지윤 지도 / 류병희
부감 / 박문태 석귀수

남교사
강만호 강희창 김규용 김진수 박석봉 양병진 이재옥 이양호 이용현 이인용 이정훈 임재봉
장영환 정영래 정재모 조흥진 현승조

여교사
강순희 고명진 김진자 김영숙 김영아 김영옥 김영혜 김영화 김윤숙 김학선 남계순 문경희
박애희 박정란 박태남 서희자 신소자 안화순 윤경자 이경옥 이정남 이정희 임동태 장은숙
최화자 한금자 함봉애 함진희 황선혜

장년2부

부장 / 강모용 지도 / 김영훈
부감 / 최자용 박영림

남교사
강홍식 권오준 김진관 나승은 박규연 박종현 신선길 안동수 유상태 이강근 이동경 이인광
장창수 조성훈 권학대 한효진 함용식 황학규

여교사
강정희 권기영 구옥자 김경순 김군자 김숙자 김순자 김경숙 김은지 김태숙 남 희 박숙경
박차화 박찬옥 박춘옥 박대남 서화자 신은소 신경순 안정희 양문대 황유남 황진숙 유기순
유병남 윤인순 이애자 이영자 이현진 임선영 정경자 정경희 정문대 정순이 조영숙 진화자
차창숙 채해선 한희희 허순자 허은숙

장년3부

부장 / 임필성 지도 / 방준영
부감 / 김영록 이해숙

남교사
고재훈 김용식 남승용 박광식 송수일 이병영 권용택 정은환 조성래

여교사
강옥련 김복희 김성순 김문심 박현숙 서금자 서영남 안정희 안종남 양숙자 윤옥자 윤효남
이영란 이미재 이서륜 이준재 이형주 전진희 정금숙 조복희 조분자 지순애 하영자

소망부

부장 / 황의만 지도 / 이종대 교역자 보조 (심명) / 장명자
부감 / 안병호 김 순

남교사
권병철 권영돈 김은철 김일중 김재춘 김희선 박종태 백종현 송현천 오춘성 윤성철 이경재
이근오 이규규 이인호 이학봉 장길남 한찬길

여교사
강인영 강정혜 권영애 김국자 김성도 김옥기 김재순 김정수 김혜경 남명숙 남현숙 노희혜
류성자 민정순 박경희 박영순 박용식 박일래 박정순 백경숙 백경숙 송정순 안수자
안지영 염미숙 염숙연 오말녀 오경남 유금렬 유금순 유기림 유운심 이옥자 이은옥 이지혜
이한복 이현순 이형숙 임근애 임창순 장영애 최말순 최영옥 한동원 홍경숙

신혼가정부

부장 / 한송규 지도 / 정진호
부감 / 김규식 전경금

남교사
구성현 김창용 김현철 문연식 박병후 박종운 이두희 이승득 이정관 장철환 정인옥 최승민
최재필

여교사
김영자 김정은 김화경 김혜정 김희선 박소연 박민정 석태임 안철희 이경현 이지영 이필순
이혜정 이희자 정영희 최귀준 최희경

사람부

부장 / 함필주 지 도 / 나광영
부감 / 이명희 정호진

남교사
구현운 김진석 김동식 김두수 김무수 김보성 김성훈 김재일 김수연 김은칠 김광민 김경운
김현진 김형민 박민호 박상대 박재민 박준배 신봉성 윤민식 이구연 이동섭 이인규
이정덕 정우재 조영호 조승현 조태원 조흥문 최규원 최수현

여교사
강명숙 강진희 강혜숙 권정자 권장희 김경순 김세영 김옥주 김윤경 김은희 김재윤
김재자 김향자 김현아 김연숙 문영숙 박금식 박명희 박성미 박혜옥 변매선 변혜자
서희진 서은영 손지영 손은혜 양명자 양영희 양명숙 유순희 이신경 이선옥 이유미 이우정
이서희 임창순 장애교 장인선 장선미 장성미 장은숙 장은옥 장은진 장은진 장은진
조명자 조은희 조은희 최수남 최은희 최은희 최은희 최은희 최은희 최은희 최은희

2004년 입단 명단

에바다부

부장 / 조종환		지 도 / 박민기	
남부 / 권 철		박무미	
남교사			
김병권	김용태	김유식	김정근
이태훈	전은수	정재진	정지호
여교사			
강기일	강복희	김미애	김선림
민경주	박금희	박정애	변은희
정순옥	정영미	조옥희	홍은숙

탁아부

부장 / 김승곤		지도 / 최문실	
부감 / 김창국		은필례	
남교사			
고광국	김재호	이영두	
여교사			
강성자	강영자	강옥희	강재열
김숙자	김순자	김소희	김연숙
김효진	나정순	남숙자	노분선
백옥식	변필수	성임선	성순수
오부화	오수옥	오승민	유영선
이보희	이상복	이준남	이영순A
정영애	정주환	조남숙	조성옥

새가족부

부장 / 박덕양		지 도 / 여성기	
부감 / 장승규		박명엽	
남교사			
강두형	김달현	김민태	김종조
이희철	정금수	조윤성	조종택
여교사			
강길혜	강옥련	고길순	구병조
박유정	신정자	염영자	유정자
이자경	이정화	전계식	전방자
추민정	한숙정	홍경선	황종임

전도위원회

위원장 / 김천재		지 도 / 방준영	
서 기 / 장철환		회 계 / 박철구	
위 원 / 이계인		정태두	
실행위원 / 조석구		양호인	

전도부

부 장 / 김천재	
실행위원 / 정원근	

남녀전도부장

부 장 / 이계인		차 장 / 이병영	
남전도회 연합회장 / 김문섭		여전도회 연합회장 / 박계민	
남여전도회 실행위원 /			
구원섭	김문섭	정장수	박필래
최준호	황기용	한호철	김원근
조준호	최경순	정진녀	박계민

전도회 회장 /

교구	바울	베드로	요한	한나	에스다	루디아	미리야
1교구	구원섭	윤선한	김동철	최신자	조연숙	김경숙	이혜경
2교구	김문섭	구재환	위길호	박노희	김성순	유순원	안정민
3교구	정창수	허만선	장기탁	박정현	김계희	홍은기	김정원
4교구	박필래	나승은	송중식	전방자	이영숙	김영은	신관호
5교구	이동경	김종훈	공병식	성순수	김영숙	김덕희	이정희
6교구	이계옥	최용길	오승선	김근자	정호진	김인덕	박노숙
7교구	장길남	윤종국	장병준	유규필	조준호	신영희	박신아
8교구	안노수	남용승	김진갑	백희숙	최경순	황호선	조영근
9교구	강희정	장철환	김창용	강국원	정진녀	김하경	이연희
10교구	심희민	이양호	김승식	서계실	박계민	오은경	주명숙
11교구	김철환	장경수	안도영	정주환	이복희	배연식	홍혜선

12교구	윤우신	이종원	이양선	권순애	이희집	진옥란	이연재
13교구	최준호	강신철	양승복	이해수	지인숙	장용숙	장소영
14교구	황기용	박석두	도상훈	강정일	손선래	이능이	임미순
15교구	한호철	강석화	유승원	황유남	김태숙	오영자	김진미
16교구	김원희	구창희	김재호	김동금	김금순	김종녀	김옥주
17교구	유상대	박희원	장재순	차창숙	김숙자	최양숙	박재경
18교구	김상대	허형철	정재영	엄숙현	이인숙	송혜경	안정숙

농어촌부장

부 장 / 박철구	실행위원 / 조석구	장승규	유상태	박승길
-----------	------------	-----	-----	-----

충현전도대장

대 장 / 배준식	실행위원 / 장용희	윤상철	김혜정	이연실	이현숙
-----------	------------	-----	-----	-----	-----

직능전도부

부 장 / 권명옥	실행위원 / 표관식	이명희	김철환	강만호	이인광
-----------	------------	-----	-----	-----	-----

군전도회	최장 정태두	지도	고광환
경찰전도회	최장 노영환	지도	하종철
실업인전도회	최장 권명옥	지도	안치원
이미용전도회	최장 장철환	지도	양재용

선교위원회

위원장 / 이종석	지 도 / 김교성
서 기 / 고계승	회 계 / 안석현
위 원 / 엄필성 이 훈 임무천 진홍용 이태식 김구형 권명옥 이선호	
실행위원 / 박석두 이수자	

단기선교부

부 장 / 이태식	지 도 / 김교성
진행분과 / 분과장 고계승	
실행위원 / 차 장 김태식	
권병철	장승규
이현숙	윤승희
지원분과 / 분과장 이태식	
실행위원 / 차 장 조문수	
문경숙	곽원구
부분과장 이실호	
실행위원 / 차 장 조문수	
장석원	이호식
문경숙	곽원구

의료선교부

부 장 / 엄필성	지 도 / 김교성
실행위원 / 차 장 안세현	
최민식	김영희
김지형	김종재
정은미	이종은
부분과장 안석현	
실행위원 / 차 장 이영환	
이부성	유태재
김석영	이상식
최재진	이종은
부분과장 안석현	
실행위원 / 차 장 이영환	
이호일	김신국
김성호	이호일
최재진	이종은

선교연구원

원 감 / 이종석	지 도 / 김교성
국내외국인선교부	
부 장 / 임무천	
차 장 / 이부성	
지 도 / 정현민	
부 지도 / 송요한	
교역자보조 / 권영일	
오철용	
추진회	
이종원	

2004년 입권 명단

실행위원/

이신봉	이종환	이상석	강리화	김은경	백창숙	유경하	이정현	조수진	강미경	김윤희	성바로
윤인준	이종민	조영구	강현주	김재윤	소양식	윤해균	이호은	주동진	구영하	김정민	손진도
윤해원	임관신	채홍표	구원섭	김정은	송은희	이명하	임용관	최수미	권영진	김종현	신동식
이성진	최정민	김경애	김진경	신미애	이상우	장병준	최진주	김병상	김희연	신진화	이성훈
장용희	최준호	김서영	김형미	신재금	이수진	장재희	하주연	김석영	김희연	안정신	이순자
정미숙	한수정	김성진	남은희	양미숙	이영우	정용화	홍금성	김승희	도수자	양미자	이영환
정혜린	황성숙	박수민	박수민	박수민	이원섭	정희정	황인길	김예사	박재민	한성수	이정태
조성희	박진수	노수석	안지훈								

교재연구회

부장 / 이형수	지도 / 양재웅
연구위원 / 김정수	장 훈 이희식 최종철 안치원 정충신 김민철
실행위원 / (편집)	황정연 강신은 강정자 황지훈 (그림) 이호식 홍영철

봉사위원회

위원장 / 김영길	지 도 / 류병희
서 기 / 이정우	회 계 / 이달옥
위 원 / 강도용 문홍구 조인재	이창호 김단용 안동현 정태두 박철구 신상수
장철환 함철주 윤석민	

구 제 부

부 장 / 강도용	
실행위원 / 이호일 오순도	이영자 오말녀 임점희 임금순 김영래 장순태

자원봉사부

부 장 / 신상수	
실행위원 / 유상태 김창국	장승규 장용희 김을필 박옥현

차량안내부

부 장 / 안동현	
실행위원 / 허명호 손기현	추창방 허 오 문효식 박창식 이인광 박오용
박영기 김홍홍 변혜수	윤석규 이인수 김원호 윤신환 박원화

부 원 /	
공석생	권태선 김낙홍 김동완 김명성 김봉중 김승용 김성태 김이경 김일교 김영연 김재기
김경태	김종규 김종민 김종성 김희태 민명옥 박승준 박재빈 박충순 박형곤 박형태 배관용
백찬환	성 중 신환식 신현옥 엄창근 우기섭 이상실 이승구 이양구 이우형 이우성 이재철
이장권	임길순 임동제 장동규 장영광 정영환 전인환 전승훈 정승진 주낙진 최진성 최홍섭
한용택	한종구 홍석표

재난구호봉사대

대 장 / 윤석민	
부 대 장 / (남)박승길(집사회 회장)	(여)명정옥(권사회 회장)
총 무 / 고승근(집사회 부회장)	
실행위원 /	
최장남	이인광 김철환 권병철 이호일 문연식 양한원 장철규 오순도 장용희 오화자 이정현
신영은	한영덕 이순자 조향운 유호준 황유남 박광자 홍경선

충현호스피스회

회 장 / 박철구	부 회 장 / 이옥주
교 역 자 / 이종대 정진호	장 훈 이희식 최종철 김말자 김정연 장명자
실행위원 / 김창국 반연숙	장재복 이연실 황순란

인사위원회

위원장 / 당희장	
위 원 / 노광현 김은호 이 훈 김천재 이종석 진홍용 이형수	

기획위원회

위원장 / 이종석	지 도 / 이종대
서 기 / 기획실장 / 이형수	회 계 / 원용철
위 원 / 김의철 이 훈 김광남	전통림 김한기 정성현

주간총현

편집국장 / 이형수	지 도 / 이태복
간사 / 양성연 권오섭	
편집기자 / 엄정섭 엄혜린	권향임 이종원 황대원

교구위원회

위원장 / 김은호	지 도 / 정현민
서 기 / 김단용	회 계 / 고재승
실행위원 / 임연수	이수자

1 교구

교구장/김천재 지도/고광환 부지도/김영순 간사/최세진 이정미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국기1	이보신	조연숙	김창기	서혜정	김경숙, 김정수	
	국기2	이보신	김은희	김창기	정옥화	정희선	
	국기3	이보신	신영자	김창기	최명옥	김상희	
02	국기4	김신국	김상아	최계열	전옥순	김춘자	
	국기5	김신국	김국자	최계열	우병희	김행자	
	국기6	김신국	김국자	최계열	김경숙	유정자	
03	춘천1	구원섭	설복연	김경록	이정옥	임문자	송은화
	춘천2	구원섭	최신자	김경록	최은희	최송자	
	춘천3	구원섭	최신자	김경록	문영숙		
04	목양1	장규호	강신순	장창원	신동옥	신명주	
	목양2	장규호	강신순	장창원	엄유신	이정미	
	목양3	장규호	안경자	장창원	김승희	이정현	
05	안주1	김광국	김희술	이원재	이정미	이순희	
	안주2	김광국	이종숙	이원재	강옥련	강 옥	
	안주3	김광국	송영옥	이원재	곽노경	백창숙	
06	역삼1	김대용	정상순	이재관	신명자	남주옥	
	역삼2	김대용	백영자	이재관	이숙희		
	역삼3	김대용	백영자	이재관	오승민		
07	역삼4	양한원	장성혜	최준식	전운옥	이수진	
	역삼5	양한원	이현숙	최준식	이경순	최종란, 김은자	
	상록1	양한원	이옥순	최준식	김경순	박태옥	
08	상록2	이부성	이수자	김성태	심오심	이경자	
	상록3	이부성	이수자	김성태	박경희	신진화	
	상록4	이부성	이수자	김성태	이명숙	김영란, 심인순	
09	한서1	김용조	정복득	박광식	임동계	박봉연	
	한서2	김용조	홍경선	박광식	대일회		장정애
	한서3	김용조	황진순	박광식	이혜경		
	한서4	김용조	이근덕	박광식	김화순	김영희	
10	태해란1	이승계	양선자	전삼진	양삼순	백인숙	
	태해란2	이승계	이영자	전삼진	남경자	강준자	
	태해란3	이승계	이옥기	전삼진	김경례	김영희, 정연숙	
	태해란4	이승계	노정자	전삼진	김희수	양정숙	

2 교구

교구장/박홍규 지도/여국근 부지도/장해구 간사/문흥무 신정숙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미성	박상대	안경희	김 광	김혜정	김옥선	
	한대1	박상대	이주형	김 광	김성은		
	한대2	박상대	박영숙	김 광	삼인주	이순민	
	한양1	박상대	윤정희	김 광	박연희		
	한양2	박상대	조재순	김 광	안종남	김미영, 신혜영	
02	청담1	신진수	김경순	문홍무	오혜숙	노희례	
	청담2	신진수	정명실	문홍무	오미영	황은희	
	청담3	신진수	안경자	문홍무	이영숙	정옥선	
03	삼성1	구재환	심호숙	최한태	이명희		
	삼성2	구재환	이한복	최한태	류태숙	이수선	
	삼의	이정자	구재환	최한태	주순희		
	AID	구재환	구자남	최한태	오국남		
04	해청	이영환	김순배	김지철	이명옥		
	신동1	이영환	김은숙	김지철	김성자	김영희	

2004년 일간 평단

신동2	이영환	김영아	김지철	최수자		
05	하동	박장서	전성실	유병수	이재숙	김영희
관세청	박장서	안경숙	유병수	유순희	허미자	김영희
06	경북1	장은환	박호지	최현구	장숙자	김유정
경북2	장은환	최진화	최현구	손은희		
이화	장은환	안경숙	최현구	황정림	조태숙	
07	양지1	김문섭	김상순	이정태	최근준	최명희
양지2	김문섭	김성자	이정태	조은정	서진희	
양지3	김문섭	홍정숙	이정태	유복심		
08	공무원	장용희	유인옥	조용연	안정민	
논현1	장용환	장윤옥	조용연	한재순		
논현2	장용희	곽노희	조용연	윤효남	정화순	
논현3	장용희	백영기	조용연	박명자	조순남	
09	논현4	이상해	정복순	장동석	김귀자	
논현5	이상해	노순옥	장동석	김영례	최남영	
논현6	이상해	이월산	장동석	김명순		
10	논현7	강두형	김순옥	조윤성	김선미	김순옥b
논현8	강두형	정진기	조윤성	강해숙	김미연	
논현9	강두형	문인란	조윤성	이유자		
논현10	강두형	김순실	조윤성	권정자		

04	미도1	박원화	이순현	김종진	김신숙	박혜영
	미도2	박원화	이순현	김종진	박복희	홍재자
	서래1	박원화	신자식	김종진	이춘희	박복희
05	서래2	박원화	신자식	김종진	심영희	박복희
	방매1	박원화	김성도	유종석	곽숙단	오명자
	방매2	박원화	김성도	유종석	이향선	이유자
	방매3	박원화	이영영	유종석	김명선	노계희
06	방매4	박우현	허은숙	노경화	신혜옥	주미아
	방매5	박우현	백순자	노경화	조은숙	전혜숙
	방매6	박우현	방정숙	노경화	윤정자	안순복
07	우성	문효식	장정자	이희우	임명희	김미덕, 이미란
	무지개	문효식	이천애	이희우	이창순	천명규
	산도아	문효식	이천애	이희우	한기희	장득경
08	삼호	최민석	김옥래	이흥기	황 향	박종민
	삼성1	최민석	이영숙	이흥기	정준자	김인숙
	삼성2	최민석	이영숙	이흥기	유경희	하서연
09	삼풍1	신진길	조용기	송남석	김성희	정효순
	삼풍2	신진길	조용기	송남석	강 순	조연옥
	삼풍3	신진길	이영숙	송남석	이종희	유영자
	삼풍4	신진길	이영숙	송남석	윤순상	강정희
10	서초1	유기명	박인순	권오준	김순재	김순재
	서초2	유기명	허인순	권오준	권경애	이명숙
	서초3	유기명	이순순	권오준	이상옥	조숙임

3 교구

교구장/노영환 지도/여성기 부지도/윤인숙 간사/박종철 김애자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검사	권찰
01	대치1	최남하	반정현	김옥권	박희수	송희명, 백혜옥	
	대치2	최남하	노본선	김옥권	김예순	박준자	
	대치3	최남하	노본선	김옥권	차옥진	김은주	
	대치4	최남하	전병욱	김옥권	이규숙	김기남	신우혜정
02	대치5	김희선	김순자	최종순	함경애	강영숙, 전봉수	
	대치6	김희선	오달녀	최종순	이월산	박정숙, 원영주	
	삼익	김희선	염경자	최종순	임현숙	이정희	
	삼호	김희선	염경자	최종순	홍은기	강여경	
	정철	김희선	고순호	최종순	정미자	박미향, 이해영	
03	대림1	김형곤	김정림	박종철	박애영	유은희	
	대림2	김형곤	김정림	박종철	박진숙		
	미도1	김형곤	송순자	박종철	이미애	이옥경	
	미도2	김형곤	궁희복	박종철	주혜연	김숙자	
04	쌍용우성	김신호	민병인	조영구	오정림	이신옥	
	은마1	김신호	민병인	조영구	김정민	안혜영	
	은마2	김신호	정문태	조영구	이혜경	강관순	
	은마3	김신호	정문태	조영구	전혜영	서순석	
05	은마4	김신호	정문태	조영구	전혜영	서순석	
	동신우성	이경재	김인자	김희동	정정자	김미연	
	럭키1	이경재	김종자	김희동	임현숙	이명숙	
	럭키2	이경재	김종자	김희동	최종란	이현애	
	럭키3	이경재	반연숙	김희동	이봉선	김정숙	
	럭키4	이경재	반연숙	김희동	안화순	이상미	
06	신정우성	장창수	정은희	최광현	장정선	강은희	
	한신	장창수	송순자	최광현	이재선	주기숙	
	도곡한신	장창수	김지현	최광현	김영구	남영하	
	진달래1	장창수	한정희	최광현	김정자	오영하	
	진달래2	장창수	주정희	최광현	박태순	이명순, 최순현	
07	가나리1	문영규	김용섭	김문섭	허종숙	강영숙, 임김영	
	가나리2	문영규	최정숙	김문섭	성명선	박정희, 부경란	
	가나리3	문영규	김계희	김문섭	윤일자		
	가나리4	문영규	김계희	김문섭	구명숙	임순남	
	성보	문영규	유영자	김문섭	김애자		

4 교구

교구장/김구형 지도/류병희 부지도/신동자 간사/이흥우 박미순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검사	권찰
01	잠원1	이상석	전방자	이상돈	강정순	이효순	
	잠원2	이상석	홍화숙	이상돈	황정림	유미향	
	잠원3	이상석	유영순	조한주	마리나	김경옥	
	잠원4	이상석	유영순	조한주	신관호	이 정	
02	반포1	오순도	정인숙	강호원	마현미	유순남	
	반포2	오순도	정인숙	강호원	김영은	구명남	
	반포3	오순도	황주옥	강호원	김정숙	김정숙	
	반포4	오순도	황주옥	강호원	이미경	오지연	
03	가든1	신광철	박종영	이인용	김관희	안숙영	
	가든2	신광철	박종영	이인용	조영란	김경애	
	한양	신광철	이금숙	이인용	이영순	오귀봉	

5 교구

교구장/안석현 지도/이성진 부지도/김말자 간사/정태동 임복례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검사	권찰
01	우면신선	이지은	전현선	양은식	홍재경	홍성순	
	양재우성	이지은	차 회	양은식	김진순	정귀임	
	양재1	이지은	채해선	양은식	방신자	이영숙	
02	양재2	장성운	김지연	김남영	백애순	김의진	
	양재3	장성운	성준순	김남영	권미숙	이필재	
	포이1	장성운	성준순	김남영	김언정	강은미	
03	포이2	김종훈	이연순	박종운	김희선	유명희	
	시영	김종훈	이연순	박종운	최은혜	임학신	
	개포현대	김종훈	김 순	박종운	김순옥	강태연	
	경남우성	김종훈	김 순	박종운	정명자		
04	개포1-1	정태동	백영희	정진곤	문성애	김현자	
	개포1-2	정태동	백영희	정진곤	전재숙	김현자	
	개포1-3	정태동	하두연	정진곤	조영희	이규자	
05	개포2	박봉선	이순자	노규식	조영희	고숙희	
	개포3	박봉선	김현순	노규식	이명애	황방자	
06	개포4	박봉선	김현순	노규식	김유미	엄순애	
	개포7	김달현	김강자	송남석	김미리	변인원	
	우성한신	김달현	김강자	송남석	안순옥	최옥현	
	개포대치	김달현	안정자	송남석	김영혜	강윤옥	
07	일원1	전종일	서정자	박옥현	정금자	곽계자	
	일원2	전종일	서정자	박옥현	정영희	유동숙	
	일원도시	전종일	김희자	박옥현	이영희	조옥련	
	삼곡수푸른	전종일	김영숙	박옥현	유현숙	신경애	
08	목련1	양기수	함자옥	전병우	함자옥	조경순	
	목련2	양기수	함자옥	전병우	박병순	이후자	
	수서1	양기수	김성희	전병우	최정옥	오경숙	
	수서2	양기수	이혜주	전병우	최정옥		

6 교구

교구장/염필성 지도/위건량 부지도/이옥주 간사/김영주 정옥임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검사	권찰
01	우성1	박광식	김은덕	이병두	김두돈	정해선	
	우성2	박광식	김은덕	이병두	심금숙	최숙자	
	신수촌	박광식	황선희	이병두	김미열		
02	우성3/4	박광식	오경희	이병두	이순애	곽노희	
	잠본1	김규식	이혜자	송한천	양옥자	정윤신	
	잠본2	김규식	이혜자	송한천	박영옥		
	잠본3	김규식	김영민	송한천	박옥자		
03	잠본4	김규식	김영민	송한천	권연숙	안선희	
	잠본5	윤성열	김연홍	김현근	심영숙	위갑순	
	잠본6	윤성열	박정선	김현근	조연이	김순자	
	잠본7	윤성열	김준식	김현근	오세은	허준희	
04	석촌	윤성열	김연홍	김현근	이현희	안정희	
	방이1	김태식	황종임	박석산	김정옥	김수연	
	방이2	김태식	홍기환	박석산	황순란	고희란	

2004년 입문 명단

	송과현양 김태식	김군자 박석산	이순기 서윤숙		
	송과삼익 김태식	김군자 박석산	이명숙		
05	열린송과 김태식	김군자 박석산	강순금	이미정	
	가락 이세영	김준은 이우자	김영수		
	송파 이세영	이금순 김현철	김정수		
	송미리1 이세영	한순희 김현철	김창옥		
	송미리2 이세영	한순희 김현철	이화자		
06	가락우성 문연식	이혜숙 전도식	김인덕	최희숙	
	전영성 문연식	고영혜 이윤송	이명숙		
	문정 문연식	구영자 전도식	박은숙		
	장지 문연식	구영자 전도식	박은숙		
07	오금대원 안상직	양명옥 한용택	조영숙	김은주	
	오금마천 안상직	정호진 한용택	이평송	이정화/이훈하	
	상아 안상직	이화자 한용택	이미랑		
	거여 안상직	이화자 한용택	윤자옥	김명숙	

7 교구

교구장/김은호 지도/정진호 부지도/조옥자 간사/조준민 김형숙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할
01	풍남1	박용기	조영자	이수녀	안현정	김이영	
	풍남2	박용기	명정옥	이재호	장화숙	권영남	
	풍남3	박용기	박영임	이재호	이인순	권영남	
	풍남4	박용기	현계식	박신자	김영미	이명숙	
	풍남5	박용기	김복희	박영기	장상화	소성애	
02	장미1	최태환	윤수원	신용한	황정미	임현진	
	장미2	최태환	김인숙	신용한	김영숙	전영경	
	진주	최태환	필기복	신용한	김숙자	박정숙	
	시영	최태환	이신자	신용한	유경혜	최준자	
03	상내1	임창식	이재문	엄종배	이연실	최미자	
	상내2	임창식	김은심	엄종배	이정임	최희남	
	울림파1	임창식	이규숙	정중현	장남희	주미경	
	울림파2	임창식	조준옥	정중현	김경희	최귀훈	
04	돈현	장길남	김은숙	김근호	김유희	이강혜	
	천호1	장길남	배귀녀	김근호	황은선	김순옥	
	천호2	장길남	유금열	이신동	이혜숙	박수정	
	천호3	장길남	김군자	이신동	지숙자	김예1	
	천호4	장길남	장명숙	이신동	김재순	박세순	
05	둔촌1	전계식	유신덕	이기국	황명숙	이미숙	
	둔촌2	전계식	이형주	이기국	김옥연	박 정	
	암사1	전계식	홍복기	윤병식	민준주	임도하	
	암사2	전계식	차명식	윤병식	이수연	김미숙	
	암사3	전계식	변성옥	윤병식	김미숙	유혜경	
	암사4	전계식	이종영	윤병식	공성연	최은아	
06	길동1	송두섭	홍양태	조중덕	이현숙	이영숙	
	길동2	송두섭	김형숙	조중덕	장숙희	송윤임	
	명일	송두섭	이경자	조중덕	서미경	최미경	
	고덕1	송두섭	전옥희	윤용현	김경자	황 자	
	고덕2	송두섭	민병남	윤용현	채명혜	이명희	
07	하남	이인광	조중선	김용석	지치현	김옥여	
	광주1	이인광	최수진	김용석	신영희	김부애	
	광주2	이인광	최명진	김용석	김지영		
	광주3	이인광	김신자	김용석	공은향	최정연	
	이천	이인광	홍현숙	김용석	최정향	김수진	

8 교구

교구장/정문석 지도/박준영 부지도/인태수 간사/김현배 박은주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할
01	중곡1	김중선	조복덕	김철남	이흥옥	강정희	
	중곡2	김중선	황근진	김철남	박순천	이영희	
	중곡3	김중선	김성녀	김철남	황호선		
	군자송정	김중선	신영순	김철남	한금자	정애순	
02	구의1	추병창	김필분	김해길	정태순	김정환	
	구의2	추병창	김숙희	김해길	박은주	신정숙	
	구의3	추병창	박희복	김해길	강영재		
03	위귀힐	박승길	김용성	정철석	최수남	최명숙	
	원대	박승길	김경순	정철석	황차란		
	극동	박승길	임옥환	정철석	고성숙	서정미	
	강동우성	박승길	김숙희	정철석	이연숙	박순경	
04	자양1	이인원	공정자	박준근	박영순	예지아	
	자양2	이인원	구정희	박준근	오준분	송명자	
	자양3	이인원	김신자	박준근	박자화	이광분	
05	노유	손기현	우정자	김유현	도수자		

	성수	손기현	오덕수	김유현	이복연	노연경
	화양	손기현	구옥자	김유현	김배자	
06	홍익	최자용	유병순	강홍선	이미나	김경애
	백산	최자용	김봉재	강홍선	김인환	
	마장	최자용	김명주	강홍선	김남희	
	왕십리	최자용	김순연	강홍선	이승연	이혜경
07	행당1	김종홍	박윤식	전성옥	전성옥	류은경
	행당2	김종홍	김영자	전성옥	이소규	김순희
	웅봉1	김종홍	이오목	전성옥	황옥희	
	웅봉2	김종홍	서귀순	전성옥	김순연	신은옥
08	근로1	남용순	연화숙	전귀환	김정자	
	근로2	남용순	이윤자	전귀환	김희진	변정자
	근로3	남용순	한정희	전귀환	이정래	박미숙
09	옥수1	김을필	조은선	이덕규	최광숙	안신희
	옥수2	김을필	최상진	이덕규	김보자	박정숙
	옥수3	김을필	라영실	이덕규	최난희	황혜선
	옥수4	김을필	양산자	이덕규	남귀숙	조희영

9 교구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할
01	용두	동방용운	김익순	김병성	김미경	김영순	
	청량리	동방용운	이남숙	김병성	최순실		
	이문	동방용운	정영숙	김병성	최정환		
02	담십리	강희창	김정희	황일선	정애화		
	장안	강희창	김순근	황일선	윤현숙		
	전봉	강희창	이희자	황일선	오형순	김효선	
03	중계1	홍성숙	황순화	고광국	조은희	이연임	
	중계2	홍성숙	유영희	고광국	김환진		
	중계3	홍성숙	유영희	고광국	김환진		
	공릉	홍성숙	김혜선	고광국	김환진		
04	월계1	이상복	이영숙	이형찬	한 숙	김정순	
	월계2	이상복	김남진	이형찬	안희옥		
	하계1	이상복	이영숙	이형찬	한영숙		
	하계2	이상복	김정애	이형찬	이명태		
05	목1	정재모	김소선	조규하	김현미		
	목2	정재모	김소선	조규하	김현미		
	중화	정재모	박두희	조규하	임민창		
	상봉	정재모	이미혜	조규하	김환진		
06	면목1	김연태	이명희	이창희	남현숙		

[illegible]

교구장/김영수 지도/나광영 부지도/최문실 간사/강종묵 태명지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인현	김종만	정주환	김봉화	남구자	조정숙	
	오강	김종만	윤신자	김봉화	지아연		
	윤지	김종만	소길순	김봉화	이경자	박진희	
	행림	김종만	김준지	김봉화	이경자	박순례	
	장충1	김종만	박부강	김봉화	박부강		
02	장충2	김종만	태명자	김봉화	유옥자	윤수진	
	광희	김철환	양병희	문원준	박경연		박미란
	목정	김철환	박신자	문원준	김경희	인영자	
	필동1	김철환	안소니	문원준	권국희	김미숙	
	필동2	김철환	안소니	문원준	김두연		
03	필동중립	김철환	이서륜	문원준	안수연		
	신당1,5	석영식	김순옥	정영덕	이선옥	박복순	
	신당2	석영식	윤성숙	정영덕	유지춘	문금란	
	신당3	석영식	변현숙	정영덕	심영진	강삼아	
	신당4	석영식	한정옥	정영덕	강신자	조춘자	
04	약수	김인희	이수자	박찬서	박재귀	윤영홍	
	남산타1	김인희	강순자	박찬서	권경희	이혜자	
	남산타2	김인희	이은단	박찬서	권경희	김희영	
	남산타3	김인희	남 희	박찬서	이시은	최영희	
	이태원	박효용	조분자	이동섭	배현식	이병자	
05	한남1	박효용	양영숙	이동섭	김희숙	박미숙	
	한남2	박효용	양영숙	이동섭	전순순	김예숙	
	보광	박효용	이복희	이동섭	최이순	권기순	
	청파	박효용	김소매	이동섭	전순숙	전광임	
	도원	박성명	김필녀	지정록	김태명	신은수	
06	후한방	박성명	김경자A	지정록	김숙자	정성자	
	동이촌1	박성명	김영숙B	지정록	임정숙	서종하	
	동이촌2	박성명	이경현	지정록	김세향	조명숙	
	시촌	박성명	김영숙B	지정록	강철자	박경란	
	자하	김인술	문명애	강종득	엄정자	정 욱	
07	평강	김인술	윤재진	강종득	백근옥	문봉래	
	해화명륜	김인술	원길자	강종득	김영자H	김영자H	
	동송	김인술	박순옥	강종득	신조자	김옥례	
	창신	김인술	이인자	강종득	최순희	김순연	
	술인	김인술	경종옥	강종득	정영숙		

교구장/위은철 지주/이조철 부지주/하여주 가사/김양주 이선숙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분광	정영래	윤옥자	이승우	김은희		
	갈현	정영래	최승희	이승우	이미란	강영희	
	녹번	정영래	최순자	이승우	김태급		전희자
	용암	정영래	박윤옥	이승우	이옥자		
	역내	정영래	백옥신	이승우	이연재	장진영	

교구장/배춘식 지도/김익환 부지도/김정연 간사/장철규 박숙희

교구장/김단용 지도/조규호 부지도/ 간사/김영화 김병희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관찰
01	여의도	조흥진	오화자	공석성	원경희		이현주
	문래	조흥진	박정민	공석성	윤영연	임정희	
	당산	조흥진	손순자	공석성	현정화	최연숙	
	양림	조흥진	강순희	공석성	이숙희	최익삼	
	목6	조흥진	임미숙	공석성	박경희	최현정	
02	목1	전은배	신정순	배종락	전인순	정은주	
	목2	전은배	채귀곤	배종락	현연숙	최미경	

2004년 입단 평단

03	목3	전은배	김영미	배종락	김병희	이선민	유미순	
	목4	전은배	이정애	배종락	김은실	이진주		
	목5	전은배	김경애	배종락	김수자			
04	신길	이정탁	김영민	이민호	이애숙	강성자	김영미	유미순
	대림	이정탁	김한선	이민호	박현숙	박정윤		
	구로1	이정탁	오훈실	이민호	엄향순			
05	구로2	이정탁	김한숙	이민호	박금식	윤남순	김영미	유미순
	신도림	이정탁	홍현희	이민호	김재윤			
	신정	김수연	이은숙	이근호	최영훈			
06	고척	김수연	정경희	이근호	이성옥	유인규	김경자	유미순
	개봉1	김수연	이경애	이근호	김자금	이형자		
	개봉2	김수연	강정일	이근호	강복희	강희희		
07	가산	박종용	양명자	윤석구	전숙영		김경자	유미순
	독산	박종용	양명자	윤석구	김유순			
	시흥1	박종용	김명숙	윤석구	이인숙	정용애		
08	시흥2	박종용	김명숙	윤석구	손진례		김경자	유미순
	광명	박종용	문영남	윤석구	장정애			
	오류	강만수	권필순	남명선	박명희			
09	하안1	강만수	김순자	남명선	고진순	김혜정	김경자	유미순
	하안2	강만수	전복실	남명선	고진순	노미태		
	철산1	강만수	이경호	남명선	이남이			
10	철산2	강만수	임용재	남명선	최옥숙		김경자	유미순

15 교구

교구장/임명자 지도/김용덕 부지도/김정자 간사/남용철 김부영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흑석1	최호일	안은희	정우성	성기동	김정숙	권찰
	흑석2	최호일	김정숙	정우성	이명진		
	상도1	최호일	이수덕	정우성	김동순		
02	상도2	최호일	구영민	정우성	김영옥	방영은	권찰
	상도3	최호일	김은주	정우성	이윤표		
	노량진	최호일	조순민	정우성	김부영		
03	신대방1	강석화	전경자	신중식	김옥자	박선영	권찰
	신대방2	강석화	표복심	신중식	양영숙	강영미	
	남원	강석화	신재근	신중식	김병은	이복란	
04	사당1	강석화	고준대	신중식	이윤주	신화호	권찰
	사당2	강석화	김옥남	신중식	김연향		
	사당3	박석봉	김영란	최홍집	김병희	서삼옥	
05	사당4	박석봉	서경자	최홍집	김진자	채임숙	권찰
	사당5	박석봉	허영자	최홍집	김옥자	최재순	
	사당6	박석봉	조영숙	최홍집	성지현	강난훈	
06	관악현대	박석봉	윤춘심	최홍집	김태숙	권수인	권찰
	봉천1	허 오	신숙재	함경무	김경희	정 아	
	봉천2	허 오	안태숙	함경무	전옥순	최영순	
07	봉천3	허 오	최현자	함경무	김영미	김영옥	권찰
	봉천동아	허 오	임신영	함경무	서해경		
	봉천드림	허 오	황유남	함경무	김학선		
08	봉천4	이강근	정찬선	김기태	이정화	김명숙	권찰
	봉천5	이강근	왕덕자	김기태	오기남	노광희	
	봉천6	이강근	전경희	김기태	박금자		
09	봉천7	이강근	이문구	김기태	박나희	박수희	권찰
	봉천8	이강근	김종현	김기태	이정순	김동주	
	신림1	박종태	김옥순	유승렬	송해숙	노현래	
10	신림2	박종태	김순자	유승렬	박일례		권찰
	신림3	박종태	박광자	유승렬	김영실	박종숙	
	신림4	박종태	박민례	유승렬	오영자	이인숙	
11	신림5	박종태	김향자	유승렬	김정복	김숙분	권찰
	신림6	박종태	김남식	유승렬	양영애	한성수	

16 교구

교구장/김영길 지도/최성규 부지도/강덕필 간사/이기숙 현경남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파천1	김병권	조향순	임우도	석대일	권영진	권찰
	파천2	김병권	조향순	임우도	박혜순	홍성희	
	파천3	김병권	권준순	임우도	김영숙		
02	관양	현준봉	전경애	구창희	전경애	김복수	권찰
	비산	현준봉	이경자	구창희	김미숙		
	호계	현준봉	정경자	구창희	유향란	박귀원	
03	인양1	현준봉	김은심	구창희	임은미	김혜진	권찰
	인양2	현준봉	김은심	구창희	김종녀	임미희	
	평촌1	이상범	이경자A	윤상열	김성자	박민숙	
04	평촌2	이상범	윤은진	윤상열	박용란	최영선	권찰

04	평촌3	이상범	김명자	윤상열	유기진		유미순
	평촌4	이상범	한동열	윤상열	김기화		
	평촌5	홍원식	이인숙	김무수	김옥주	한옥분	
05	평촌6	홍원식	박영자	김무수	유계순	유계순	유미순
	인덕원	홍원식	허연옥	김무수	현정남	석은영	
	포일1	홍원식	김은숙	김무수	남상인	박재숙	
06	포일2	홍원식	김옥자	김무수	손인숙	김금자	유미순
	신본1	윤상철	변금순	김규용	장민화	조순덕	
	신본2	윤상철	최재순	김규용	장혜남	최은희	
07	신본3	윤상철	최정자	김규용	양미정	박영미	유미순
	신본4	윤상철	윤정미	김규용	유정진	최신자	
	신본5	윤상철	조은수	김규용	한금래	이영숙	
08	신본6	윤상철	김정숙	김규용	남우순	이영숙	유미순
	신본7	윤상철	양숙자	김규용	이정연	장미숙 장인실	
	수원1	김민호	민병만	김강호	정길래	박혜정	
09	수원2	김민호	유금순	김강호	김금순	이호숙	유미순
	수원3	김민호	윤수정	김강호	김연다	심인숙	
	수원4	김민호	김동금	김강호	조순혜	이용래	
10	한일	김민호	김강숙	김강호	최정은	김예순	유미순
	평산1	김민호	박기분	김영환	임종래	이영숙	
	평산2	김민호	박기분	김영환	홍희숙	허국현	
11	천안	김민호	김주분	이상범	이행숙	손수경	유미순
	안산1	양병진	천태숙	김재호	천태숙	고옥순	
	안산2	양병진	천태숙	김재호	김옥희	박찬희	
12	안산3	양병진	한경화	김재호	백은실	김춘자	유미순
	안산4	양병진	한경화	오수민	한순애	김하숙	
	안산5	양병진	한경화	오수민	이미숙	박은자	

17 교구

교구장/최원덕 지도/임현덕 부지도/김민식 간사/유재훈 남계순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태평	송영준	김경희	정금수	이옥순		권찰
	신동주	송영준	정금수	정금수	배순복		
	신동	송영준	조옥주	정금수	박원숙		
02	은평	이광국	김인단	김광진	남계순	남명숙	권찰
	신대원	이광국	김지선	김광진	이만순	최막점	
	청남	이광국	김명화	김광진	임정숙		
03	장미	한만희	김정원	유재훈	최향숙		권찰
	장미	한만희	김정원	유재훈	최나희	조인옥	
	마화	한만희	정순애	유재훈	박미정	한경분 정은혜	
04	목련	한만희	정순애	유재훈	유재훈		권찰
	이매1	이호일	장신자	이창우	유기영		
	이매2	이호일	김경자	이창우	최경숙		
05	이매3	이호일	김연수	이창우	유영희	송민복	권찰
	매곡	김재홍	강호일	유원동	정순자		
	이름1	김재홍	권영애	유원동	박재경		
06	이름2	김재홍	차창숙	유원동	김영순	윤미경	권찰
	이름3	김재홍	정순애	유원동	김현수		
	서현1	정선현	최홍식	김홍식	봉정자	오인숙	
07	서현2	정선현	최홍희	김홍식	정원자		권찰
	정자	정선현	오천자	김홍식	강민경		
	효도	김연진	유기순	박희원	김순자	예은경	
08	장안	김연진	최태희	박희원	김영희		권찰
	새빛	김연진	이가옥	박희원	이영숙	신순희	
	수내	현순조	나순희	윤은중	서정애	황원길	
09	양지1	현순조	신진숙	윤은중	최희희	박상순	권찰
	양지2	현순조	정경자	윤은중	현명희		
	한솔	안병호	김숙자	신태홍	윤영아		
10	정자1	안병호	안숙자	신태홍	박철순	김순이	권찰
	정자2	안병호	이정숙	신태홍	김광혜	최희삼	
	정자3	안병호	배은경	신태홍	이영숙	신서운	
11	창송1	권병철	곽기영	문경안	최선자		권찰
	창송2	권병철	곽기영	문경안	이영자		
	까지	권병철	한영덕	문경안	양은혜	박수인	
12	하안	권병철	한영덕	문경안	심덕희		권찰
	무지개1	권병철	저순애	문경안	조정숙	장보윤	
	무지개2	권병철	저순애	문경안	김영희		

18 교구

교구장/강철현 지도/하중철 부지도/전은희 간사/김유환 신옥자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구성1	정부조	방소애	박민호	정혜진		권찰

2004년 입관 명단

구성2	정부조	조숙	박민호	김진미
구성3	정부조	이명자	박민호	안정숙
구성4	정부조	서화자	박민호	지정민
구성5	정부조	전경금	박민호	박경애
구성6	정부조	최영자	박민호	이연화
구성7	정부조	윤영자	박민호	김현화
신갈1	김홍기	한경숙	허형철	오계순
신갈2	김홍기	이순일	허형철	전유강
상갈	김홍기	김정숙	허형철	박숙경
구갈	김홍기	왕인숙	허형철	이희표
용인	김홍기	유해자	허형철	서지화
알지	김홍기	문옥순	허형철	함윤자
죽전1	한만교	염숙현	강대영	최영순
죽전2	한만교	남정애	강대영	홍정호
죽전3	한만교	최영득	강대영	주신영
죽전4	한만교	박부미	강대영	김진아
수지1	전학래	정희경	임광신	송혜경
수지2	전학래	임근애	임광신	홍원기
동천1	전학래	백경옥	임광신	조옥례
동천2	전학래	변옥희	임광신	이희순
성원1	이용현	고경숙	박재현	홍명희
성원2	이용현	강정희	박재현	김희숙
상원1	이용현	신옥자	박재현	강영자
상원2	이용현	유재춘	박재현	이윤정
상원3	이인영	이인숙	김종흠	김필숙
상원4	이인영	최규	김종흠	박경숙
상원5	이인영	유호순	김종흠	박은영
신봉	유상태	김봉숙	김재운	허순자
신경	유상태	박순옥	김재운	박영자
성북1	유상태	김효경	김재운	임정희
성북2	유상태	김정희	김재운	한혜정
성북3	유상태	강경란	김재운	김금숙

경상부감사 / 김광남

실행위원 / 지규성 장철환 김연태 이인용 최은경

법인운영위원회

위원장 / 노광현 서 기 / 이형수

위 원 / 이병학 남선우 차신득 안종욱

교육훈련연구원

원 장 / 당회장

부원장 / 황영일 지 도 / 이종철

서 기 / 이형수 회 계 / 이실호

구분	원감	지도
교육연구원	김단용	이종철
성경연구원	황영일	김익환
전도훈련원	김진재	방준영
선교연구원	이종석	김교성

충현장학회

회 장 / 당회장

부회장 / 이 훈 지 도 / 안장덕

위 원 / 노광현 진홍용 원용철 김구형 고재승

제직회

회 장 / 당회장 서 기 / 임창식 부서기 / 박성명 김종선 김연근

집사회

회 장 / 박승길 지 도 / 정현민 부회장 / 고승균

권사회

회 장 / 명정옥 지 도 / 이종대

서 기 / 이순자

	회장	부회장	해당교구
1지회	오화자	정호진	(1 6 10 13 14교구)
2지회	이정현	노순옥	(2 7 11 15교구)
3지회	신영순	유영희	(3 5 8 9 12교구)
4지회	한영덕	조 숙	(4 16 17 18교구)

노회총대

노회총대 / 노광현 이 훈 진홍용

충현교회 유지재단

이사장 / 김성관

이 사 / 노광현 이병학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감 사 / 임필성 원용철

재단법인 충현동산

이사장 / 김성관

이 사 / 노광현 이 훈 김영길 안종욱 김재명 이하영 박인진

감 사 / 정윤석 진홍현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

이 사 장 / 김성관

상임이사 / 김재명

이 사 / 김희철 노광현 김광남 임무현 진홍용 김구형 조종환

감 사 / 이 훈 차신득

19교구 교구장 / 고재승 지도 / 안창덕 부지도 / 이수경

행정위원회

위원장 / 진홍용

서 기 / 김영달 회 계 / 김영은

사무국장 / 김영달 기도원감, 통산부장, 상호회장 / 김종구

위 원 / 노광현 이 훈 이형수 장철형

재정위원회

위원장 / 이 훈 서 기 / 안종욱 회 계 / 박용규

위 원 / 김의철 노광현 임무현 진홍용 조종환 이단옥 윤석진

실행위원 /

김연근 김양태 김장영 김진옥 마도원 박문태 박병태 박재인 박준현 박정근 박창서
소재철 송두섭 송영주 송영준 송영준 신종식 안상직 이 철 이희우 이재욱 임순배 전계식
전재룡 정 준 조영철 조종환 전학래 최석규 황학규

건축위원회

위원장 / 임무현 서 기 / 황영일 회 계 / 최지운

위 원 / 남선우 최무길 이정우 김영달

실행위원 /

전은배 문효식 이강근 변영민 박재명 김종선 최준호 류기명 김규용 김문섭 최봉환 장철유
홍정숙

감사위원회

위원장 / 김광남 서 기 / 최무길 회 계 / 정윤석

위 원 / 한승구 박덕양 정철길 박찬섭 김승곤 정선현

십자가의 삶

김정수 (집사, 1교구)

이제 잠잠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에 붙 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각자, 저마다의 삶터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
앞 다투어 우리 구주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흔쾌히 기뻐 전함은

그 나라에서의 *상급도려니와
진정한 상급되시는 우리
구주 주 하나님의 참된
바람인 타에
그 어느 누가 참으로 우리
주 하나님의 빼어난
백성인지 알 수 없음에
최선을 다하여 힘껏
힘 다하여 마음껏

십자가 보혈로서의 삶을
사는 바,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구원 받기를 바라
미련스런임 보이는 전도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배우옵니

주 하나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상급도려니와 · 상급도 있으리니와

♡ 교구 안에서 만난 예수님 ♡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기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눅 13:33).

이 직설적인 말씀이 큰 은혜의 말씀으로 저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올 한해도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 정말 행동있는 믿음생활을 했는지 돌아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는 등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음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의 일 때문에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갈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길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길이었기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요. 다가오는 2004년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 받아, 위의 말씀처럼 진실로 오늘과 내일과 모래도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 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몸 된, 믿음의 공동체인 총현교회의 한 지체로서 협력하며 헌신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꾀갓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박병화 (안수집사, 4교구)

♫ 다음 주일 찬송.....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이 찬송가는 원래 문학가이자 언어학자인 존 바우링(John Bowring, 1792-1872) 경이 아시아 21장 11~12절의 말씀을 기초로 작사한 것으로, 이 찬송가의 첫 부분 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성탄절 찬송가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다. 한국 찬송가 가사의 개작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 내용은 누가복음 2장 8~20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였으며, 탄생하신 주님을 목자들이 찾아가 경배한 장면을 담았다.

원 가사를 만든 바우링은 영국에서 태어났다. 14세 때 학교를 그만두고 스페인과 중국에 모직물 수출업을 하던 아버지를 도와 상업에 종사하였고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또한 그는 어학에 능통하여 정부가 그에게 세계 통상 관계 조사 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그 후 그는 홍콩 총독, 중국 대사 등을 지냈고 시, 수필 등 많은 글을 남겼다.

이 찬송곡은 로웰 메이슨(Lowell Mason, 1792-1872)박사가 1830년에 작곡했고 그는 이 찬송의 곡명을 MISSIONARY(선교) 또는 CHRISTIAN HYMN(성도의 찬양) 등으로 불렀다.

1절 : 파수꾼이여, 구주 나신 밤을 알려주소, 그 약속의 증표가 무엇인지 말해 주소.

여행자여, 저 멀리서 너머 영광의 광채를 발하는 별을 보시오.

2절 : 파수꾼이여, 구주 나신 밤을 알려주소, 저 별은 더 높이 오로니

여행자여, 별의 행로는 축복과 빛, 평화와 진리를 알리고 있도.

3절 : 파수꾼이여, 구주 나신 밤을 알려주소, 아침이 밝아오니

여행자여, 어둠이 물러가고 의식과 두려움이 걷히고 있도.

후렴 : 파수꾼이여, 저 별의 아름다운 광채는 기쁨과 소망의 전조가 아니겠소.

여행자여, 그러므로, 저 별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날 바로 그 날의 전령이라오

*이 찬송가 가사는 이사야 21장 11, 12절을 토대로 한 원래 가사를 번역한 것으로

충현 성도들을 하여금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와 대조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찬양위원회)

세 · 가 · 족 · 을 · 한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444	박만옥	1	장년부	김성배(1)	1456	이덕범	7	장년부	이진규(6)	1468	류소옥	19	대학부	김홍준(11)
1445	성미경	1	장년부		1457	이광현	7	중등2부	이진규(6)	1469	이민정	19	장년부	장규수(19)
1446	주배린	1	대학부		1458	한종신	8	장년2부	박영준(8)	1470	황재연	19	장년부	최호일(15)
1447	김현정	4	장년부	주미야(4)	1459	소기섭	9	장년3부	송훈기(10)	1471	이광민	19	장년부	최호일(15)
1448	노희희	6	장년부	권영도(3)	1460	이옥자	9	장년2부	표환석(7)	1472	윤수영	19	장년부	김대웅(1)
1449	나복숙	6	장년부	권영도(3)	1461	김순환	13	장년2부	홍복기(7)	1473	최희수	19	장년부	김대웅(1)
1450	노지연	6	장년부	권영도(3)	1462	서한진	14	장년2부	최호일(15)	1474	이도연	19	장년부	최호일(15)
1451	노상희	6	장년부	권영도(3)	1463	임미숙	14	장년2부	최호일(15)	1475	박근영	19	장년부	조은혜(1)
1452	황예리	7	장년2부	최영희(7)	1464	임장갑	16	장년2부	최금중(1)	1476	장상기	19	장년2부	송한진(6)
1453	양현석	7	장년1부		1465	서은진	19	중등2부	임복섭(6)	1477	임지택	19	장년2부	최호일(15)
1454	이경주	7	장년2부	김윤숙(9)	1466	추지희	19	고등부	황정미(7)	1478	심화심	19	장년2부	조영리(8)
1455	김미영	7	장년2부	이진규(6)	1467	이주은	19	고등부	황정미(7)	1479	홍명진	19	장년2부	

*총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2003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유아부

김지희 (유아부 지휘)

교회학교에서 가장 어린 지휘자로 어른들의 기대와 격정 가운데 유아부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사실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경험도 없어서, 걱정하며 유아부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처음으로 맞이하였던 것은 아이들의 포랑포랑한 맑은 눈망울이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거의 무조건적으로 제게 사랑을 주던 아이들과 함께 유아부에서 시간을 보낸 지 4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이들도 많이 자라 처음 함께 했던 아이들은 벌써 유년부에 있습니다. 저도 4년 동안 많이 자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 열정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었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께만 맡기게 됩니다.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찬양소리를 들으며 저도 함께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솔직한 신앙의 모습들을 담아갑니다.

가끔 찬양대 석에 앉은 아이들이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던 중 제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선생님,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요?"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시지요?"

아이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복음을 자신의 잣대로 재는 어른들과는 많이 다른 아이들의 모습에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요즘은 성탄축하예배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예뻐보이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지금 찬양을 준비하는 유아부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요즘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노래인 가요를 쉽게 접하고 향유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따로 구별되어서 세상 노래가 아닌 찬양 가운데 자라며 하나님께 찬조하신 작은 입술에서는 찬양만이 흘러나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처음에는 잘 따라하지 못 하더니 요즘은 집에서 매일매일 찬양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향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 교사양성부 교육을 받으며 ☆

제 12강 반목회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고 하십니다. 주의 명하신 것은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요 15:17 참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13-14).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하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부탁하실 때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마 18:5).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제자를 맞이하고 싶지는 것을 자신에게 한 것은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아비가 된 자들은 믿음의 어린 아이들을 사랑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교사양성부 교육은 제12강을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교사양성부 교육을 받으며 교사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주일학교 선생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알고 있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서로 사랑하고 낮아진 자,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서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자,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자, 이들이 교사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마 24:45-46).

(황대원 기자)

작은 천사들의 기도

임은미 (집사, 유년부 교사)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그 얼굴로 내게 비취사 은혜 배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6).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유년부 아이들과 만난 것이 었게 같은데 벌써 12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귀한 아이들을 나에게 맡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년부 예배와 함께 유년부 예배는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와 같은 순서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성경 구절과 찬송가를 잘 찾지 못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찾는 모습들이 의젓하고 대견합니다. 초등학교에 적응하라, 유년부에 적응하라 몹시 힘들었지만, 그래도 인내하며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사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쁜 목소리로 찬양하며 작은 입술로 기도합니다.

- ♥ 사랑의 예수님이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도 잘 드리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며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수가 되게 해 주세요. - 한지수
- ♥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잘나고 떠들지 않게 해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 살게 해 주세요. - 정용찬
- ♥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지혜롭고 슬기롭게 자라게 해 주시고 건강주세요. - 한병준
- ♥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 심재현
- ♥ 성경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데 것이 정말 좋아요.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고 동생들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 교회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고 예수님을 닮게 해 주세요. - 조현화
- ♥ 좋은 하나님! 저는 오늘 기분이 좋아요. 주일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저의 곁에 계셔서 지켜 주세요. - 김은정
- ♥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제 동생들과 사이 좋게 지내고 건강으로 지켜 주세요. - 최서연
- ♥ 예수님! 나는 감동이에요. 우리 식구 모두 출석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삼촌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예배다루에 다녀요. 예수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모를 전도할 거예요. 우리 식구 모두 건강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 강정훈

2003년도 한해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 기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사랑스러워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빛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 회 소 식

알림

1. 제6차 학습세례식 안내

제6차 학습세례식(12월 14일(주일))에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입교·개교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당당교 역사자료실을 찾아 신청하시거나 바랍시다.

모임

1. 전사 전체 총회

일시: 오후 15:00

장소: 강림교회

2. 전사 전체 교육

일시: 17일(수) 오후 5시에

장소: 강림교회

3. 강림교회 불례회 및 총회(축하)

일시: 오후 15:30

장소: 본당 112호

4. 설립연전대회 2003년 총회

일시: 16일(목) 18:00~20:30

장소: 본당 112호

별세

1. 박순애 여교사 1230/7월 18일

91세

2.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박정호 장로 1230/7월 18일

◆ 교구총회

일시: 12월 14일(주일), 4부예배 후

장소: 본당

*교구총회 관계로 각 교구별 모임은 없습니다.

◆ 특별제직회

일시: 12월 14일(주일), 전영예배 후

장소: 본당

대 상: 제직전원

연 전: 2003년도 결산 및 2004년도 예산안

◆ 2004년도 총연간보고서 설명회

일시: 12월 21일(다움주일), 전영예배 후

장소: 본당

대 상: 교역자·장로·지역장(안수집사)

◆ 2004년도 전반기장학생 시상안내

1. 선발대상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1년 12월 30일 이전 등록자

② 본 교회 교회학교에 재직중인 고·대·대학원·신학대학원 학생

③ 공제회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여 교회 각 부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

2. 신청기간

2003년 12월 28일 부터 2004년 1월 11일 까지

3. 신청장소: 교육국

문 의: 교육국 ☎562-8200 4072, 473

2003년도 제6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2월 14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김익환 목사)	교육관 309호	교포전 (김교섭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50	기독론 (고광환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위진영 목사)	교육관 304호		
12월 21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임현철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론 (방준영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자 (안창덕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50	문 단	교구별 장소	문 단	교구별 장소		
12월 28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세례식 (지역 찬양예배, 본당)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이벤트 새끼기도회 답답

날짜	시간	장소	주최/주최자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20(토)	21(주일)	
설교/기도사	이성진/황영일	조규호/송영준	최성규/이철	이재형/이재봉	이태복/유성국	정현민/한영준	여성기/전진희

예배 담당안내 (12/17~12/21)

날짜	예배	예배전찬양	찬양	기도	설교
12/17	주요1	이태복	이태복	이태복	이태복
12/17	주요2	이태복	이태복	이태복	이태복
12/19	금요집회	특별찬양 (한정주/2교시/안수집사 이상준/장)	김정주	이태복	이태복
12/21	주일1	이태복	이태복	이태복	이태복
12/21	주일2	이태복	이태복	이태복	이태복
12/21	주일3	이태복	이태복	이태복	이태복
12/21	주일4	이태복	이태복	이태복	이태복
12/21	주일5	이태복	이태복	이태복	이태복
12/21	주일6	이태복	이태복	이태복	이태복